



# 정답과 해설

1 문학과 표현	2
2 요약과 정보 전달	10
3 슬기로운 언어생활	16
4 성장하는 우리	25
● 시험 직전 워크북	34

## 1 문학과 표현

### (1) 3월

#### 지식 쏙쏙 확인문제

14쪽

- 01 가락   02 (1) ○ (2) × (2) ○   03 ①   04 (1) ○  
(2) × (2) ×

####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15쪽

- 01 ③   02 물소리, 직유   03 ⑤

- 01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평 평, 나즉 나즉)를 사용한 것이다.
- 02 ㉠에서 '자장가'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빗댄 말이다. ㉠에서 '...처럼'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3 이 시의 8연에서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이 돋아나 있는 모습을 파란 싹들이 일어나 있다고 표현하였다. 의인법이 사용된 문장은 ⑤로, 숲을 의인화하여 숲이 나를 환영해 준다고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에는 은유법이, ③, ④에는 직유법이 쓰였다.

####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16~19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①   05 ③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④

- 01 이 시는 1~4연에서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을, 5~8연에서 봄눈이 녹은 후의 풍경을 제시하여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02 이 시의 3~4연에서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빗대고 있는데, '물소리'와 '자장가'는 모두 소리가 낮고 잔잔하다는 특성이 있다.
- 03 '산과 / 들이 / 눈부시게 / 하얀 이불을 덮고 / 잠이 들었다'는 산과 들에 눈이 쌓인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시구이다.
- 04 ㉠에는 비유가 쓰였고 ㉡에는 비유가 쓰이지 않았다. ㉡를 ㉠과 같이 표현하면 봄의 활기가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풍경을 더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보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05 의인법은 '빨래가 춤을 춘다.'와 같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 06 이 시의 2연과 6연에서는 '점심 무렵에는', '산과 / 들이 - 산과 / 들에'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운율은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운율은 시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08 운율은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시구,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방법,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방법, 끊어 읽는 단위를 일정한 수로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처럼 운율은 기본적으로 반복에 의해 형성되므로 한 행을 길게 늘어 쓴다고 하여 운율이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09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빗댄 대상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중학교 생활'과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을 떠올릴 때 중학교 생활과는 관련이 없지만 리듬감이 있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한 행의 글자 수를 일정하게 하는 것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처음이니까>의 4, 5연에서는 한 행의 글자 수를 일정하게 하고 있지 않다.

소단원 핵심문제

22~23쪽

01 ㉔ 02 ㉓ 03 ㉑ 04 ㉕ 05 ㉓ 06 ㉑의  
원관람: 봄눈, ㉑의 원관람: 물소리 07 ㉔ 08 ㉕ 09 해  
설 참조

01 이 글의 갈래는 '시'이다. 시는 소리 내어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인 '운율'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피하기 ㉑은 희곡, ㉓은 수필, ㉔는 주장하는 글(논설문), ㉕는 기사문에 대한 설명이다.

02 이 시에 등장하는 자연물인 '산', '들', '봄눈' 등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나타내는 대상이다.

오답 피하기 ㉑ 이 시는 눈이 오는 날 아침부터 눈이 녹은 다음 날 점심까지의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㉔ 8연에서 새싹이 돌아난 장면을 '파란 싹들이 ... 일어나 있다'와 같이 의인법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㉕ '나죽 나죽'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㉓ '봄눈'의 하얀 색채, '싹'의 파란 색채를 통해 이른 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이 시의 2연과 6연에서 '점심 무렵에는', '산과 / 들이 - 산과 / 들에'처럼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4 이 시의 1~4연에서는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을, 5~8연에서는 봄눈이 녹은 뒤의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

05 이 시에서 1~4연은 고요한 분위기가, 5~8연에서는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㉑). 5~8연에서 '잠자리에서 뛰어난 아이들', '왁자지껄'과 같은 시구를 통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㉔).

오답 피하기 ㉑: 시의 전반부인 1~4연에서는 '잠이 들었다', '나죽 나죽'과 같은 시어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06 ㉑(이불)은 1연의 '봄눈'을 빗댄 표현이며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㉑(자장가)은 3연의 '물소리'를 빗댄 표현이며 '...처럼'이라는 말을 통해 빗댄 것으로 보아 직유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07 ㉔(나죽 나죽)는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나타내

는 말로, '소리가 꽤 낮은 모양.'을 뜻하는 '나직나직'을 바꿔 쓴 표현이다. 산과 들에 봄눈이 덮인 모습을 표현하는 시구는 아니다.

오답 피하기 ㉑, ㉓, ㉔, ㉕ ㉓는 '소리가 꽤 낮은 모양.'을 의미하는 '나직나직'을 바꿔 쓴 표현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시 전반부의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시에서는 '나죽 나죽'과 같이 특별한 표현 효과를 내기 위해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08 ㉕에는 '...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직유법이 사용된 것은 ㉕로, '...같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고 있다.

오답 피하기 ㉑, ㉓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㉔, ㉕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9 [A]에서는 '파란 싹'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의인법'이라 하며, 이를 통해 파란 싹들이 여기저기 돌아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시 답안 [A]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으며 파란 싹들이 여기저기 돌아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소단원 시-논술형

24쪽

01 [A]와 [B]에는 공통적으로 '은유법'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이불'에 빗대었으며, '산과 들'이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거나 '해'가 이불을 '걸어 가 버렸다'라고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02 '봄눈이 내리더니'와 '해가 떠오르더니'에서 '...이/가 ...더니'와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한다. 이 시에서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을 느끼게 하여 소리 내어 읽는 재미를 준다. 또 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을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하고, 시의 분위기를 강조한다.

01 [A]와 [B]에는 공통적으로 ‘은유법’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A]에서는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이불’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 이는 은유법에 해당한다. 또한 ‘산과 들’이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고 사람인 양 표현하였는데, 이는 의인법에 해당한다. [B]에서는 은유법을 활용하여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이불’에 빗대었다. 또한 ‘해’가 산과 들에 깔린 이불을 ‘건어 가 버렸다’고 사람인 양 표현하였는데, 이는 의인법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A]와 [B]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유의 종류 두 가지를 바르게 쓴 경우	3점	5점
[A]와 [B]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모두 적절하게 밝혀 쓴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이 시의 1연과 5연에서는 ‘...이/가 ...더니’와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가락을 의미한다. 시에서의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을 느끼게 하여 소리 내어 읽는 재미를 주고, 시에서 다루는 대상을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하며 시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시어나 시구를 구체적으로 밝혀 운율 형성 방법을 설명한 경우	3점	6점
이 시에서 운율이 주는 효과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2) 오우가

**지식 쏙쏙 확인 문제** 25쪽

01 ㉓    02 4음보    03 상징    04 (1) ○ (2) ○ (3) ×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 문제** 26쪽

01 ㉒    02 ㉑    03 ㉑ 술, ㉒ 눈서리

01 이 시조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술’의 변함 없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02 이 시조는 한 행을 네 마디씩 끊어 읽는 것(4음보)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이 시조의 제4수에서 ‘술’은 눈서리를 맞아도 잎이 지지 않고 구천에 뿌리가 곧다는 점으로 보아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눈서리’는 나무를 시들거나 죽게 만드는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 문제** 27~31쪽

01 ㉓    02 ㉒    03 ㉑    04 ㉒    05 추상적    06 ㉓  
 07 ㉒    08 ㉑    09 ㉑    10 관습    11 ㉓

01 이 시조의 제1수에서 다섯 벗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벗은 수(물), 석(돌), 술(소나무), 죽(대나무), 월(달)이다. 매화는 이 시조의 제1수에서 소개한 다섯 벗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이 시조에서는 한 행을 네 마디씩 끊어 읽는 4음보를 반복하며 운율이 형성된다. 하지만 다은이는 한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끊어 읽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술아√너는 어찌√눈서리를√모르는다’와 같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03 이 시조에서 ‘술’은 눈서리를 모르고 구천에 뿌리가 곧은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술’은 외부 환경에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이 시조에서 ‘술’은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이와 유사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꿋꿋하게 이겨 내려는 태도이다.

05 상징을 사용하면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추상적’이란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06 2연에서 선재가 ‘나’의 책가방 지퍼를 달아 준 뒤로 ‘나’의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오고, 가방을 연 ‘나’는 가방에서 붕어빵을 발견하였다. 이로 보아 선재가 ‘나’의 책가방에 붕어빵을 넣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07 이 시에서 '나'는 춥고 배고프며, 집에 아무도 없어 외로운 상황에서 선재가 가방에 넣어 준 붕어빵을 발견하였다. 이때 '나'는 선재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8 이 시는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붕어빵'이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상징'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구의 따뜻한 마음과 거기에서 받은 감동이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9 이 시에서 '붕어빵'은 선재가 '나'를 위해 가방에 넣어 준 것으로,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상징한다.
- 10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사회에서 통용되어 온 상징은 '관습적 상징'이다. 관습적 상징의 예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같은 것이 있다.
- 11 <보기>에 따르면 상징은 원관념인 추상적 관념을 보조 관념인 구체적 사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상징에서는 원관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조 관념이 강조되어 표현된다. 따라서 상징이 보조 관념을 숨기고 원관념만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핵심문제

34쪽

- 01 ②    02 ②    03 해설 참조    04 ①    05 ②

- 01 이 시의 갈래는 '시조'이다. 시조에서 첫 음보를 3음절로 고정해야 하는 부분은 중장이 아니라 중장이다.
- 02 이 시조는 한 행을 네 마디씩 끊어 읽는 것(4음보)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ㄴ).
- 03 ㉠(눈서리)은 솔을 시들거나 죽게 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을 의미하며, 사람에게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한다.  
| 예시 답안 | ㉠은 '솔'을 시들거나 죽게 할 수 있는 외부의 힘(또는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한다.

- 04 제4수에서 '솔'이 '눈서리를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 문맥과 솔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솔은 눈서리가 내려도 시들지 않고 푸르른 특성을 지니기 때 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5 이 시에 쓰인 상징은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주지 않는다. 이 시에 쓰인 상징은 '지조', '절개'와 같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느껴지게 하는 효과를 준다. 또한 독자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소단원 서논술형

35쪽

- 01 ㉠의 상징적 의미는 '지조' 또는 '절개'이며, ㉠은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관습적 상징에 해당한다. ㉡의 상징적 의미는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또는 '우정'이며, ㉡은 시인이 작품 안에서 독창적으로 부여한 개인적 상징에 해당한다.
- 02 (가)에서 화자가 예찬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대상은 '솔'로, '눈서리'를 모르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솔'은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보기>의 인물 중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은 '유관순'이다. 유관순 역시 일제의 탄압과 같은 어려움에도 일제에 끝까지 저항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01 ㉠(솔)의 상징적 의미는 '지조' 또는 '절개'이며, ㉡(붕어빵)의 상징적 의미는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또는 '우정'이다. 상징의 종류에는 관습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 관습적 상징은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며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작품 안에서 독창적으로 부여한 상징이다. ㉠은 관습적 상징에 해당하며, ㉡은 개인적 상징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원관념, 상징의 종류와 그 개념을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6점
㉡의 원관념, 상징의 종류와 그 개념을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가)에서 화자가 예찬하고 있는 대상은 ‘솔(소나무)’이다. 솔은 ‘눈서리’와 같은 고난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항상 푸르르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여기서 ‘솔’이 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은 ‘유관순’이다. <보기>에 따르면 유관순은 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저항 운동을 하였으므로 ‘솔’과 같이 지조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서 화자가 예찬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대상을 그 특성과 함께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6점
<보기>에서 (가)의 화자가 예찬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대상을 바르게 골라 쓴 경우	1점	
<보기>에서 고른 인물의 삶의 태도를 적절하게 요약하여 쓴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지식 쏙쏙 확인문제** 36쪽

01 수필    02 (1) ○ (2) ○ (3) ×    03 ②    04 성장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37~39쪽

01 ②    02 ④    03 초등학교 5학년 때    04 ③    05 ②  
06 ②, ④    07 ⑤    08 ⑤    09 ④

- 01 (나)에서 글쓴이는 윤서에게 고마운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매번 때를 놓쳐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02 글쓴이는 꼬리뼈 통증이 점차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윤서가 걱정하지 않도록 일부러 태연한 척 대답하고 있다.
- 03 (나)에서 글쓴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비가 오는 날에 겪었던 일을 서술하고 있다.

- 04 (마)에서 윤서는 빗속을 뚫고 달려가서 방석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다.
- 05 글쓴이는 꼬리뼈 통증이 심해져서 엄마가 학교 보안관실에 맡겨 놓은 방석을 가지러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막막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6 (마)에는 뜻밖에 윤서가 방석을 가져다준 것에 대한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자신 때문에 윤서가 시험공부를 못했을까 봐 미안해하는 정서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언짢음, 지루함과 같은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07 ㉠은 꼬리뼈가 골절되어 가지고 다니던 방석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했을 때, 친구 윤서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을 의미한다.
- 08 앞뒤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윤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윤서 덕분에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과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09 (바)에서 글쓴이는 윤서가 자신을 도왔던 것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40~43쪽

01 ④    02 ㉠ 도움, ㉡ 고마움    03 ③    04 경험  
05 ①    06 ④    07 ④    08 ④    09 ③    10 ③

- 01 글쓴이가 방석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날은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이었기 때문에 꼬리뼈 통증이 심해졌지만 조퇴를 하지 않았다.
  - 0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친구 윤서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에서 고마움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다.
  - 03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과 그때 느낀 감정을 고려할 때 ㄱ, ㄴ의 반응은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ㄷ: 글쓴이는 쑥스러움을 이겨 내고 윤서에게 고맙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 04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첫 번째 단계는 ‘경험 떠올리기’이다.
- 05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06 <여름비와 방식>에서는 글쓴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아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을 다루고 있다.
- 07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육하원칙의 질문에 따라 경험을 구체화하고, 당시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④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할 질문이다.
- 08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정서, 깨달음 등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글의 ‘끝’ 부분에서는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앞으로의 다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09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는 ㉠(경험 떠올리기)-㉡(글감 정하기)-㉢(내용 마련하기)-㉣(개요 짜기)-㉤(표현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10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소단원 핵심문제

46~47쪽

- 01 ④    02 해설 참조    03 ③    04 ②    05 ④  
 06 해설 참조    07 ③    08 ④

- 01 이와 같은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수필은 글쓴이 자신이 서술자인 ‘나’가 되어 자신의 경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솔직하게 쓴 글이다. ④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 02 (가)에서 글쓴이는 여름비를 보며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 즉 ‘여름비’가 글쓴이에게 과거 경험

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 글쓴이가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

- 03 (라)에서 글쓴이는 꼬리뼈 통증 탓에 엄마가 맡겨 놓은 방석을 가지러 가지 못하자 학교 보안관실 쪽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이는 답답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에서 글쓴이는 꼬리뼈가 골절돼 의자에 앉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방석을 집에 두고 와서 당황했을 것이다.  
 ② (다)에서 비까지 퍼붓자 꼬리뼈 통증이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고 했으므로 글쓴이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④ (마)에서 글쓴이는 윤서가 자기 대신에 방석을 가져다주자 고마워하고 있다.  
 ⑤ (바)에서 글쓴이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2년 전 자신을 도와준 윤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 04 (바)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글쓴이의 현재 모습은 윤서 덕분이라고 하였다. 윤서는 힘든 상황에서 처한 글쓴이를 기꺼이 도와주었기에, 이런 윤서와의 경험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의 가치를 깨달았을 것이다.

- 05 ‘강렬한(강렬하다)’의 뜻은 ‘강하고 세찬’이다. ④는 ‘강경한(강경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06 윤서는 글쓴이를 위해 빗속을 뚫고 방석을 가지고 와 주었으면서도 고맙다고 말하는 글쓴이에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윤서가 멋지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 윤서는 글쓴이를 도와주어도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다./윤서가 글쓴이를 도와준 일을 생색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07 이 글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일과 친구를 도와주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윤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유현). 또한 방석을 보안관실에 맡긴 엄마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엄마의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있다(은진).

- 08 ‘개요 짜기’ 단계에서는 마련한 내용을 어떻게 배치할지 생각하며 개요를 작성한다. 수필은 ‘처음 - 중간 - 끝’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소단원 서논술형

48~49쪽

- 01 (가)에서 글쓰이는 글감인 여름비를 언급하면서 여름비를 보면 항상 2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02 ㉠ 내 연락을 받은 엄마가 학교 보안관실에 방석을 두고 가셨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가지러 갈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친구 윤서가 빗속을 뚫고 달려가서 방석을 가져와 주었다. ㉡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03 첫째, 독자는 글쓴이의 생생한 경험과 정서가 담긴 글을 읽으며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둘째, 등장인물의 행동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게 된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삶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01 이 글의 처음 부분인 (가)에서 글쓰이는 여름비를 보면 항상 떠오르는 2년 전 경험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글쓰이를 만든 계기가 된 일이 무엇인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갖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내용을 인용하여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5점
서술상 효과를 독자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제시된 문장 형식에 맞게 쓴 경우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다)~(마)에는 힘든 상황에 처한 글쓰이를 위해 윤서가 빗속을 뚫고 가서 방석을 가져와 준 일이 제시되어 있다. 또 이런 윤서와의 경험을 통해 글쓰이가 느끼거나 깨달은 점은 (바)의 세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다)~(마)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을 두 문장으로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4점
(바)에서 글쓰이가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은 점을 찾아 제시된 형식으로 쓴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3 경험과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글쓰이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는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에 공감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독자 자

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단우', '아림', '주호'의 말에서 경험과 정서를 표현하는 글 읽기의 효과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쓴 경우 • '즐거움(재미)' 또는 '감동'을 포함하여 씀. • '성찰' 또는 '반성'을 포함하여 씀. •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또는 '(삶의) 가치'를 포함하여 씀.	각 2점	7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쓴 경우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한결을 더 확인 문제

50~52쪽

- 01 ①    02 ④    03 ④    04 ③    05 ③    06 ⑤
- 07 ②    08 비유, 태도

- 01 (가)에서 글쓰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기꺼이 나누리라 생각했다.'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02 글쓰이는 3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왔을 때, 독자의 메일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시각 장애 소년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봉사를 하게 되었다.
- 03 글쓰이는 어려운 환경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보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누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선뜻 자신이 직접 책을 읽어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 04 글쓰이는 어둠 속에서 꼼꼼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의 기척만 느끼면서 그저 어둠 속에서 있었다.
- 05 글쓰이는 아이들이 그들만의 정리 순서에 따라 어둠 속에서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다.
- 06 ㉠에서 글쓰이는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능숙하게 움직이는 수빈과 희원의 모습에서, 두 아이들의 노력과 어머니들의 사랑을 느껴 감동하고 있다.



- 07 ㉠은 새로운 공간이나 상황에서 직접 겪어 보며 배운다는 말로,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 08 글쓴이는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대단원 종합 문제

53~55쪽

- 01 ④    02 ③    03 해설 참조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해설 참조    09 ⑤

- 01 (가)의 중심 소재는 ‘봄눈’, ‘산’, ‘들’ 등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연물이고, (나)의 중심 소재는 화자가 벗이라 생각하는 다섯 가지 자연물이다. 그러나 (다)의 중심 소재는 ‘붕어빵’으로, 자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피하기|** ①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가)~(다)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나)의 ‘제4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다)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에서 차가운 이미지가 드러나고,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가장 따뜻했던 저녁’에서 따뜻한 이미지가 드러난다.
- 02 운율은 주로 규칙적인 반복이 일어날 때 형성된다. (가)에서는 ‘평 평’, ‘나즉 나즉’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가 사용되고(ㄴ), 2연의 ‘점심 무렵에는/산과/들이’, 6연의 ‘점심 무렵에는/산과/들에’처럼 같거나 비슷한 시구가 반복되면서(ㄷ)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ㄱ: (가)와 (나) 모두 시 전체에 걸쳐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ㄴ: (나)는 ‘내 벗이/뗏이나 하니/수석과/송죽이라’와 같이 4음보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한다.
- 03 ㉠은 산과 들에 눈이 쌓인 모습을 나타낸 부분으로, 산과 들이 마치 사람처럼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고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은 화자가 ‘솔’을 사람처럼 친근하게 부르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예시 답안|** ㉠과 ㉡에는 모두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에서는 산과 들이 사람처럼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솔(소나무)을 마치 사람을 부르듯,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른다.’와 같이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 04 제4수에서 화자는 눈서리를 모르고 구천에 뿌리가 곧은 ‘솔’의 특성을 통해 외부의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 05 (나)의 ‘솔(소나무)’은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사용되어 ‘지조, 절개’라는 의미가 이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관습적 상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다)의 ‘붕어빵’은 시인이 ‘우정’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개인적 상징에 해당한다.
- 06 (나)에서는 꼬리뼈 통증이 점차 심해진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다)에서는 엄마가 보안관실에 맡겨 놓은 방식을 가지러 가지 못해 막막한 마음이, (라)에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방식을 가져와 준 윤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나타난다.
- 07 설상가상(雪上加霜)은 곤란하거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뜻하는 말이다. ①~④는 모두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그러나 ⑤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피하기|** ①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④ 어려운 일이 공교롭게 계속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남을 이르는 말.
- 08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은 꼬리뼈가 다쳤을 때 방식을 가져오지 못한 날 윤서가 방식을 대신 가져와 준 일이다. (마)에 따르면 글쓴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 |예시 답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 09 글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문단은 (마)이다. (마)에서 글쓴이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윤서와의 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과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다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2 요약과 정보 전달

### (1) 요약하며 읽기

**지식 쏙쏙** 확인문제

58쪽

01 요약    02 (1) ○ (2) ○ (3) ×    03 (1) 선택 (2) 일반화 (3) 재구성    04 ㉠-㉢-㉤-㉦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59~63쪽

01 ⑤    02 ②    03 삭제    04 ④    05 ①    06 선택  
07 ③    08 ⑤    09 장경판전을, 하였다    10 ⑤  
11 위, 아래    12 ③    13 ⑤    14 ③    15 ①    16 ④

- 01 희아는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이 궁금하여 글을 읽으려 하고 있다.
- 02 핵심어가 들어 있더라도 중심 내용이 아닐 수 있으므로 요약할 때 핵심어가 든 문장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제시된 글에서 반복되는 내용인 ‘새로 나온 영화를 봤다.’를 삭제하고 ‘나와 동생은 새로 나온 영화를 봤다.’로 요약할 수 있다.
- 04 ①문단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무사히 전해질 수 있었든 걸까?’라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05 ①문단은 글의 ‘처음’ 부분으로,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이다.  
|오답 피하기| ②, ③, ④에 나온 요약, 당부, 실천 강조는 주로 ‘끝’ 부분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⑤에 나온 ‘설명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 06 희아는 문단의 중심 내용이 뚜렷이 드러나는 문장(마지막 문장)을 선택하여 ①문단을 요약하고 있다.
- 07 ②문단에서 장경판전은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바람이 잘 통하는 경사지라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⑤는 ④문단, ②는 ①문단, ④는 ③문단에 나온 내용이다.

- 08 ㉠(장경판전이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②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장경판전을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 지어 환기가 잘 되도록 한 것이다.
- 09 ②문단의 중심 문장은 ‘장경판전을 바람이 ... 잘되게 하였다.’이다.
- 10 요약하고자 하는 글에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을 활용하여 요약할 수 있다.
- 11 ⑤문단에서 장경판전의 뒤쪽 벽 살창은 위 창이 아래 창보다 약 1.5배 크다고 하였다.
- 12 ⑤문단의 중심 내용은 장경판전에 크기가 서로 다른 살창을 두어 구석구석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경판을 잘 보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창 크기 차이가 경판을 잘 보존하는 비결임이 드러나도록 요약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장경판전 안의 공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글을 쓴 목적은 아니다.  
② 살창의 보존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④ 본문에는 장경판전의 앞쪽과 뒤쪽 벽의 살창 크기의 차이가 수치적으로 드러나도록 밝혔지만 요약할 때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다.  
⑤ 장경판전의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자재는 이 글의 주제나 글을 쓴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 13 희아는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선택한 뒤에, ‘앞과 뒤, 위와 아래, 양옆’을 포괄하는 말인 ‘어느 쪽’으로 일반화하여 요약하였다.
- 14 이 글의 ‘중간’ 부분(②~⑥문단)에서는 글의 주제인, 장경판전이 팔만대장경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들을 항목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 15 ⑦문단은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문장인 ‘장경판전에는 ... 숨어 있는 것이다.’를 선택하여 요약해야 한다.
- 16 ⑦문단은 글의 ‘끝’ 부분으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64~67쪽

- 01 ⑤    02 ④    03 문단    04 ⑤    05 ①    06 ⑤  
07 ③    08 ①    09 ②

- 01 이 글의 ⑤문단에서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위아래 살창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공기가 잘 통하게 했다고 하였다.
- 02 이 글의 내용 구조도에서 ‘중간’ 부분을 포괄하는 내용은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이다.
- 03 글 전체를 요약할 때에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뒤, 서로 관련이 있는 문단끼리 묶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 04 제시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을 읽었다면 이 글을 요약한 내용에는 살창의 위아래 크기가 다른 까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요약문은 ⑤이다.
- 05 민사 재판에서는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 06 이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재미있는 내용보다는 학습을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구조도를 그려 정리해야 한다.
- 07 <보기>의 읽기 목적에 따르면 민사 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요약해야 한다.
- 08 <보기>의 중심 문장은 ‘개는 영리하다.’이며, 요약할 때 이 문장을 선택해야 한다. ‘발소리만 듣고도 ... 끝까지 지킨다.’는 ‘개는 영리하다.’라는 말을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
- 09 <보기>에서 달리기, 피구, 배구를 잘하는 것과 줄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운동을 잘한다’라는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요약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문제

70~71쪽

- 01 ②    02 해설 참조    03 ③    04 ⑤    05 ②  
06 해설 참조    07 ⑤

- 01 (나)에서 팔만대장경은 고려 시대에 조상들이 남긴 보물이라고 하였다.
- 02 (가)에 따르면, 희아는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찾아 읽으려 하고 있다.  
| 예시 답안 |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 03 (다)는 뚜렷한 중심 문장인 ‘장경판전을 바람이 ... 잘되게 하였다.’를 선택하여 요약해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 중심 소재를 소개하며 앞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밝히는 ‘장경판전의 이모저모 ... 비결을 알아보기.’를 선택하여 요약해야 한다.  
④, ⑤ (라)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기에 주요 내용이 담긴 문장들을 관련지어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들어 요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다.
- 04 (라)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기에, 주요 내용이 담긴 문장들을 관련지어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으로 요약해야 한다.
- 05 (다)에 따르면 장경판전이 경판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장경판전의 위 창을 아래 창보다 4배 크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위아래 살창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공기 순환이 잘되게 했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⑤ (나)~(라)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장경판전은 건축 자체와 구조 면에서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 06 (다)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으므로 ‘살창’이라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해야 한다.  
| 예시 답안 |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위아래 살창 크기를 다르게 하여 공기가 잘 통하게 하였다./재구성
- 07 제시된 읽기 목적에 따르면 요약문은 장경판전의 판가에 막힌 부분이 없는 까닭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라)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까닭을 포함한 요약문은 ⑤이다.

소단원 서논술형

72~73쪽

- 01 이와 같은 글은 '처음-중간-끝'으로 구성되며, 내용 구조도를 그릴 때 (가)는 '처음', (나)~(마)는 '중간', (바)는 '끝'에 포함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 02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의 요약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바) 중 이러한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 문단은 (다)이다.
- 03 (나)는 '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연을 이용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로 요약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방법은 '선택'이다. (다)는 '인간은 불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방법은 '일반화'이다.

01 이 글은 설명문으로, 일반적으로 '처음-중간-끝'의 구성 단계를 지닌다. 내용상 (가)는 '처음', (나)~(마)는 '중간', (바)는 '끝'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 구조도를 그려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설명문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를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5점
(가)~(바)가 각각 어떤 구성 단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보기>에 사용된 요약 방법은 중심 문장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 때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이다. (가)~(바) 중 '재구성'의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 문단은 (다)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재구성'의 요약 방법을 쓰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4점	5점
'재구성'의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 문단을 바르게 고른 경우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3 <보기>의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나)와 (다)를 요약한 문장에는 불이 초기 인류의 발전에 끼친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심 문장(불을 이용하기 ... 다스리기 시작했다.)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는 '토기', '칼이나 화살촉 등의 무기나 장신구'와 같은 세부

정보를 '다양한 도구'라는 말로 일반화하여 요약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의 요약문과 요약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6점
(다)의 요약문과 요약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지식 쏙쏙 확인문제

74쪽

- 01 정보    02 (1) × (2) ○ (3) ○    03 ㉠-㉡-㉢-㉣-㉤-㉥
- 04 (1) × (2) × (3) ○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75~82쪽

- 01 ②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①
- 07 ②    08 ㉢    09 ④    10 ②    11 ⑤    12 ③
- 13 ③    14 ③    15 ④    16 ④    17 ③    18 ④
- 19 ③    20 ②    21 ③    22 ⑤    23 ⑤

- 01 글의 주제는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이다.
- 02 지수는 치킨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려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치킨 자체에 대한 후기 글이 아니다.  
 ② 특정한 치킨을 소개하려는 글이 아니다.  
 ④, ⑤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 03 사용할 표현 방법은 실제로 글을 쓰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 04 지수는 온라인 잡지에서 프라이드치킨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드치킨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05 수집한 정보의 출처를 적어 놓으면 글을 쓸 때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쓰기 윤리를 준수할 수 있다.
- 06 ㉢에 따르면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최소 1,550kcal부터 최대 3,100kcal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다.
- 07 지수가 정보를 수집한 매체는 책(㉠), 온라인 잡지(㉡),

텔레비전(㉠, ㉡, ㉢), 인터넷 신문(㉣)이다.

- 08 도표를 활용하여 자료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자료는 ㉡이다. ㉡은 식당 메뉴 가운데 종류가 다양한 음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
- 09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할 때에는 정보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중요도를 판단한다.
- 10 지수는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한다는 목적을 고려하여, '중간' 부분을 시대별 치킨의 특징으로 구성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하였다.
- 11 ㉠과 ㉢ 모두 전기구이통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정보의 내용이 서로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과 ㉢을 통합하였다.
- 12 이 글은 치킨의 역사를 설명하는 설명문이다.
- 13 (가)의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예상 독자는 블로그의 방문자임을 알 수 있다.
- 14 (가)에서 글쓴이는 '여러분이 가장 ...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처럼 ... 된 것일까요?'와 같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15 (나)에서 글쓴이는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글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16 (다)에 따르면 시장통닭은 닭을 자른 뒤에 튀긴 것이 아니라 통째로 튀긴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는 (다), ③은 (나), ⑤는 (라)에 언급되어 있다.
- 17 (다)에서 식용유가 대량으로 생산되며 조리법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 18 (라)에서 고추장과 물엿, 케첩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재료를 조합한 양념을 프라이드치킨에 버무리기 시작하며 ㉠(양념치킨)이 등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라)를 참고할 때 ① 양념치킨은 1980년대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특정한 식당에서 특허를 내고 판매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우리 입에 맞는 맛을 내는 방법을 찾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한국식 양념치킨 소스'로 불린 것으로 보아 미국에서 개발된 소스는 아니다. ⑤는 전기구이통닭의 느끼함이 아니라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을 연달아 먹을 때 느끼하다는 내용이 (라)의 앞부분에 있다.

- 19 (마)에서 2000년대 이후 치킨의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20 글쓴이는 (마)에서 조사 결과와 함께 도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도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지는 알 수 없다.
- 21 지수는 '중간'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써야 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이다.
- 22 (바)에서 글쓴이는 새롭게 변화해 나갈 치킨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23 (바)에서 글쓴이가 참고 자료의 목록을 제시한 까닭은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83~85쪽

- 01 ①    02 ③    03 출처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②

- 01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단계는 '계획하기' 단계이다.
- 02 ㉠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은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은 '정보 수집하기', ㉣은 '계획하기', ㉤은 '정보 통합하기'에 관한 설명이다. ㉠~㉤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에 맞게 배열하면 '㉢-㉡-㉠-㉤-㉣'이다.
- 03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단계에서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진과 도표를 함께 제시하고,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
- 04 ㉡에는 한국 수어와 관련된 기관을 소개하는 정보가 담겨 있다.
- 05 ㉣은 인공 와우에 관해 설명하는 자료로, 글의 주제인 한국 수어와는 관련성이 떨어지기에 제외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06 '정보 통합하기' 과정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관련 있는 정보끼리 통합한다.

- 07 설명문의 구성 단계 중 글에서 다룰 대상을 소개하는 부분은 ‘처음’이다.
- 08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통일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

**소단원 핵심문제** 88~89쪽

01 ④    02 해설 참조    03 ④    04 ①    05 ⑤  
 06 ⑤    07 해설 참조

- 01 프라이드치킨은 1970년대 들어 식용유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판매되기 시작한 치킨이다. 1960년대 당시 고급스러운 외식 메뉴였던 것은 전기구이통닭이다.
- 02 (나)에서 글쓴이는 전기구이통닭의 사진을 제시하여,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예시 답안 |** 독자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03 (라)에서 2023년 5월에 한 식자재 업체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오늘날 치킨의 종류가 많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 글쓴이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② (나)~(라)는 글의 ‘중간’ 부분이며 글쓴이는 시간 순서대로 유행하거나 등장한 치킨을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프라이드치킨과 시장통닭의 차이점을 밝혀 프라이드치킨의 우수성을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마)에서 글쓴이는 (가)~(라)에서 설명한 대상에 관한 기대를 드러내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04 [A]는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를 밝히는 부분으로,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추가한 부분이다.
- 05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할 때에는 흥미도가 높은지가 아니라 정보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 06 ④는 프라이드치킨의 역사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전기구이통닭이 유행하게 된 까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

다. 따라서 ④는 전기구이통닭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나)에 활용되었을 것이다.

- 07 <보기>는 치킨의 열량과 관련된 정보로,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에 제외했을 것이다.  
**| 예시 답안 |**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소단원 서논술형** 90~91쪽

- 0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글쓴이는 주제를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로, 목적을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 소개’로, 예상 독자를 ‘블로그 방문자’로, 매체를 ‘블로그’로 정리했을 것이다.
- 02 (라)의 도표는 식당 메뉴 가운데 종류가 다양한 음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 준다. 글쓴이는 이 도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03 글쓴이는 (나)를 작성할 때 ㉠~㉢에서 ㉡을 제외했는데, ㉡은 인공 와우를 설명하는 자료로 한국 수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외하였다. 또한 글쓴이는 ㉢과 ㉣의 정보를 통합하였는데, ㉢과 ㉣은 모두 한국 수어의 뜻을 구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합하였다.
- 0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글쓴이는 글의 주제를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로, 글을 쓴 목적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 소개’로, 예상 독자를 ‘블로그 방문자’로, 매체를 ‘블로그’로 정리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 네 가지를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5점
글쓴이가 네 가지 고려 사항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 02 (라)에 나온 도표의 제목은 ‘식당 메뉴 가운데 종류가 다양한 음식, 치킨은 당당히 3위!’이다. 이는 우리나라 식당 메뉴의 종류를 조사한 도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글쓰이는 치킨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 도표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도표가 보여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5점
글과 함께 도표를 제시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3 글쓰이는 ㉠~㉢ 가운데 ㉡은 제외하고, ㉠과 ㉢은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은 인공 와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제외하였다. 또한 ㉢은 수어의 뜻을 구별하는 요소를, ㉠은 수어의 의미 전달에 중요한 요소인 비수지 신호를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 ㉢을 통합하여 활용한 것은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글쓰이가 자료 ㉠~㉢의 중요도를 잘 분석하였는지 그 까닭과 함께 적절하게 평가한 경우	3점	6점
글쓰이가 자료 ㉠~㉢의 정보를 적절히 통합하여 활용했는지 그 까닭과 함께 적절하게 평가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한 걸음 더 확인 문제**

92~94쪽

- 01 ③    02 ⑤    03 쓰기 윤리    04 ①    05 ③  
06 ④    07 ③    08 ③

- 01 (다)에 따르면 쓰기를 계획하는 단계도 글을 쓰는 과정에 해당하며 '쓰기 윤리'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이라고 하였다.
- 02 (가)에서 글쓰이는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규범(쓰기 윤리)을 어긴 찬희의 사례를 들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03 (다)에 따르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규범을 뜻하는 말은 '쓰기 윤리'이다.
- 04 (가)에서 찬희는 다른 사람이 쓴 독후감을 자신이 쓴 것인 양 꾸며 제출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쓰는 '표절'에 해당한다.

05 (바)의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 따르면 관찰·조사·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06 (사)의 다섯 번째 문장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므로 민주 사회에서 권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07 (자)에서 글쓰이는 지금까지 설명한 '쓰기 윤리'를 지켜 글을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08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는 것은 이 글에서 제시한 쓰기 윤리 규범이 아니다.

**대단원 종합 문제**

95~97쪽

- 01 ④    02 ③    03 해설 참조    04 ③    05 ④  
06 ②    07 ③    08 ②    09 해설 참조    10 ②

01 (다)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을 습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면 공기 중의 습기를 줄일 수 있어 경판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

02 (나)는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을 설명하는 문단으로, 중심 문장인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장경판전의 이모 저모를 ... 비결을 알아보자.'를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④ (다)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요약문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⑤ (라)는 중심 문장인 두 번째 문장(장경판전의 지붕에 ... 역할을 하였다.)을 선택한 뒤 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약한 내용은 '장경판전의 진흙 기와가 내부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이다.

03 <보기>의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요약문에는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은 까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답안**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은 까닭은, 서남향으로 지으면 하루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 공기 중 습기를 줄여 팔만대장경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글을 요약할 때에는 덜 중요한 내용이나 불필요한 세부 내용은 삭제하고 중심 내용을 위주로 하여 요약하는 것이 좋다. 세부 내용을 모두 포함해 간추리는 것은 요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05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는 과정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운다.

**오답 피하기** ① '정보 수집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②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06 사진을 글과 함께 제시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사진이 글 내용을 요약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07 <보기>는 프라이드치킨의 한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뒤이을 내용은 프라이드치킨의 느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은 (라)에 담겨 있다.

08 ㉠은 치킨의 열량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 이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은 글에 활용하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정보를 통합할 때에는 정보가 서로 관련이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③ ㉡는 방송 뉴스에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④, ⑤ ㉢는 전기구이통닭과 관련한 자료로, (나)에 포함될 수 있다.

09 자료를 인용한 글에는 반드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한다. <보기>에 따르면 표절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표절을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시 답안** 이 글에 인용한 자료들의 출처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한다. 표절은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표절을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10 <보기>의 중심 내용은 '대기의 역할'이며, 두 번째 문장(대기는 지구의 ... 가능케 한다.)이 중심 문장이다. 나머지 문장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두 번째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해야 한다.

### 3 슬기로운 언어생활

#### (1) 품사의 종류와 특성

**지식 속속 확인문제** 100쪽

01 품사 02 (1) × (2) × (3) ○ 03 ③ 04 ④

04 '온갖'은 수식언에 속하는 단어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책상', '저희', '셋째', '저것'은 모두 체언에 속하는 단어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101~112쪽

01 ② 02 ⑤ 03 무슨, 자꾸 04 ① 05 ④  
 06 ③, ⑤ 07 ④ 08 ② 09 ① 10 ①  
 11 진우, 학교, 노래 12 ④ 13 ② 14 ③ 15 ①  
 16 ④ 17 ①, ③ 18 ① 19 ② 20 ①  
 21 ④ 22 ④ 23 다른 단어를 꾸며 준다. 24 ②  
 25 ④ 26 ④ 27 ④ 28 ① 29 ⑤ 30 (1) 를  
 (2) 까 (3) 께서 31 ⑤ 32 ㉠ 도, ㉡ 만 33 ⑤  
 34 ③ 35 ② 36 ③ 37 아, 음 38 ④

01 <보기>에서 단어는 '나', '는', '옛', '이야기', '를', '늘', '듣는다'로 총 7개이다.

02 '웃다'는 '웃으니', '웃지만', '웃어서' 등과 같이, '투명하다'는 '투명하다', '투명하지만', '투명해서', '투명해도'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무슨'은 '소리'를, '자꾸'는 '들린다'를 꾸며 주는 단어이다.

04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걸다'이다. '예쁘다', '슬프다', '느리다', '동그랗다'는 모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05 '자다, 보다, 먹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동사), '덥다, 짧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형용사)이다. 이로 보아 분류 기준은 단어가 지닌 의미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 06 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은 형태가 변하느냐,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느냐이다. 생략 가능 여부와 자립 가능 여부는 국어 품사 분류 기준이 아니다.
- 07 '그것'과 '둘째'는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모두 체언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꽃: 체언, 너무: 수식언  
 ② 었: 독립언, 아빠: 체언  
 ③ 어떤: 수식언, 여가: 체언  
 ⑤ 깊다: 용언, 예사: 관계언
- 08 관계언에는 조사만 포함된다. 감탄사는 독립언에 해당한다.
- 09 '유미, 는, 빨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며, '뛰었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단어의 분류 기준은 형태의 변화 여부이다.
- 10 '굴', '버스', '안창호'는 모두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② '행복'은 추상 명사이다.  
 ③ '그녀'와 '거기'는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이다.  
 ④ 세 단어 모두 추상 명사이다.  
 ⑤ '어떤'은 관형사이다.
- 11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이다. <보기>에서 명사는 '진우', '학교', '노래'가 있다.
- 12 '내', '이것', '우리', '여기'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인 '대명사'이다. '지호'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13 ㉠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14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수사'이다.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 15 <보기>에서 명사는 '책', 대명사는 '우리', 수사는 '다섯'이 있다. '열심히'는 부사, '읽었다'는 동사이다.
- 16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것은 '대명사'이다. 체언에 해당하는 명사와 수사는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지 않는다.

- 17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 체언이라고 한다. 명사인 '경미'와 대명사인 '우리'는 체언에 해당한다. '근데'는 수식언(부사), '맛있다'는 용언(형용사), '챙기다'는 용언(동사)에 해당한다.
- 18 ㉠(달린다)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밑줄 친 단어 중 동사는 '잡았다'이며, 나머지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9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동사이지만 '점심'은 명사이다.
- 20 '간다'의 기본형은 '가다'이다.
- 21 '덥다'는 '대기의 온도가 높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므로 '덥자', '더워라'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 22 '고파서(고프다)'는 형용사이며, '먹었다(먹다)'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에 해당하며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 23 '현'은 체언인 '옷'을 꾸며 주고, '점점'은 용언인 '많아진다'를 꾸며 준다. 이와 같이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를 수식언이라고 한다.
- 24 '먹고'는 용언인 '먹다'가 활용한 형태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단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는 '식판'을, '반짝반짝'은 '빛나'를, '엄청'은 '맛있지'를, '아무'는 '자리'를 꾸며 주고 있다.
- 25 팔호 안에는 '피었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모든'은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며, 나머지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다.
- 26 '들리지'는 어떤 단어의 꾸밈도 받고 있지 않다. ④에서 '아무'는 체언인 '소리'를 꾸며 주는 단어이다.
- 27 '온'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계속'은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 28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는 '관형사'이다. <보기>에서 '이'는 체언인 '문제'를, '무슨'은 체언인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피하기|** '정말'은 용언인 '어렵지만'을, '꼭'은 용언인 '물겠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29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조사’이다. ①~④에서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조사에 해당하지만 ⑤의 밑줄 친 단어(새)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 30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께서’는 앞말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1)의 ‘나무’는 문장의 목적어이므로 ‘를’이, (2)의 ‘비’는 문장의 주어이므로 ‘가’가, (3)의 ‘할아버지’는 높여야 할 대상이면서 문장의 주어이므로 ‘께서’가 괄호 안에 들어가야 알맞다.
- 31 ‘가’와 ‘를’을 뒤바꾸어 ‘은호를 재인이가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로 쓰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가’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를’의 위치를 바꾸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32 ‘도’와 ‘만’은 모두 보조사이다. 이중 이미 있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포함한다는 의미를 더하는 조사는 ‘도’이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의미를 더하는 조사는 ‘만’이다.
- 33 ‘이다’는 관계언에 해당하는 서술격 조사이다. 이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말에 붙어 사용된다. 또한 다른 조사와 다르게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 34 ③의 ‘이’는 ‘인형’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조사이다.
- 35 <보기>에서는 독립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선생님’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며 나머지 단어는 모두 독립언에 해당한다.
- 36 ‘맴소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탄식조로 느낌을 드러내는 감탄사이다. ①의 ‘야’는 부름, ②의 ‘응’은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며 ④, ⑤에는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 37 <보기>에서 ‘아’, ‘음’은 문장에서 다른 말들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다.
- 38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감탄사는 놀람, 반가움 등의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113~117쪽

- |       |      |      |      |      |      |
|-------|------|------|------|------|------|
| 01 ⑤  | 02 ③ | 03 ② | 04 ⑤ | 05 ① | 06 ⑤ |
| 07 모든 | 08 ② | 09 ③ | 10 ② | 11 ④ | 12 ④ |
| 13 ③  | 14 ③ | 15 ③ | 16 ③ |      |      |

- 01 ‘사귀었다’의 기본형은 ‘사귀다’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대명사 ② 관형사 ③ 명사 ④ 조사
- 02 제시된 문장에는 대명사(나), 조사(는, 을, 도), 명사(연예인, 명), 관형사(한), 부사(못), 동사(봤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수사는 찾을 수 없다.
- 03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수식언(부사)으로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④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⑤ 조사(보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 04 ‘첫째’는 수사, ‘운동화’는 명사, ‘를’은 조사, ‘꼭’은 부사, ‘착용합니다’는 동사이다.
- 05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대명사’이다. ①~⑤ 중 대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기’이다.  
**|오답 피하기|** ② 관형사 ③ 명사 ④ 명사 ⑤ 형용사
- 06 ‘배려하는’은 ‘배려하고’, ‘배려하며’, ‘배려하니’ 등과 같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 나머지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 07 단어는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여기’, ‘시민’, ‘사람’은 모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는 ‘체언’에 해당하지만 ‘모든’은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에 해당한다.
- 08 ‘만날’은 수식언이 아니라 기본형이 ‘만나다’인 용언(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 09 ③의 ‘열’은 ‘사람이나 물건이 죽 벌여 늘어난 줄.’을 뜻하는 명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명사 ② 부사 ④ 관형사 ⑤ 동사
- 10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이

다. ㉠에는 ‘동생’, ‘이’, ㉡에는 ‘새’, ‘망원경’의 명사가 있다.

**|오답 피하기|** ㉠ ㉡, ㉢에는 모두 독립언에 해당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에는 ‘이’와 ‘를’ 2개의 조사가, ㉡에도 ‘를’, ‘을’ 2개의 조사가 사용되었다.

④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인데, ㉠(뛰는 다)과 ㉡(관찰하려고, 샀다) 모두 동사가 있다.

⑤ 용언을 주로 꾸며 주는 단어는 ‘부사’인데, ㉠과 ㉡ 모두 부사가 없다. ‘새 망원경’에서 ‘새’는 관형사이다.

**11** ‘네’는 응답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양훈야’는 명사인 ‘양훈’에 조사 ‘야’가 붙은 형태이다.

② ‘창문’은 명사이다.

③ ‘달았니’는 동사이다.

⑤ ‘아까’는 부사이다.

**12** 밑줄 친 단어인 ‘다섯’은 수사이다. 수사는 체언에 해당하며,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

**13** 밑줄 친 단어인 ‘정말’은 부사이다. ③에서 ‘잘’은 ‘부른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14**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청유나 명령의 뜻으로 쓰일 수 없다. ‘재미있다’는 형용사로, 청유(재미있자 등)나 명령(재미있어라 등)의 뜻으로 쓰일 수 없다.

**15** ‘예뻐라’의 기본형인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예뻐라’와 같이 명령의 의미로 쓰일 수 없다.

**16** ㉠에는 <보기>에 ‘살랑’과 ‘우두커니’와 같은 부사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부사가 적절하게 활용된 글은 의미가 더 자세해지고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한다.

**01** 어떤 용언을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는 기준은 ‘의미’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이지만,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02**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품사는 수식언(관형사, 부사)이다. ③에는 수식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웃는’은 ‘웃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부사인 ‘살짝’이 포함되어 있다.

② 관형사인 ‘이’가 포함되어 있다.

④ 부사인 ‘살랑살랑’이 포함되어 있다.

⑤ 부사인 ‘한참’이 포함되어 있다.

**03** ‘칠하다, 마시다, 곱다’는 모두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이다. 반면 ‘달력’, ‘셋’, ‘아하’, ‘제발’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04**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명사이다.

**05**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이다. <보기>의 대화에서 대명사는 ‘이것’, ‘거기’, ‘나’가 있으며 각각 ‘문제집’, ‘책상’, ‘지호’를 가리킨다.

**|예시 답안|** 이것은 ‘문제집’을 가리킨다. ‘거기’는 ‘책상’을 가리킨다. ‘나’는 ‘지호’를 가리킨다.

**|오답 피하기|** ‘그 아이’에서 ‘그’는 ‘아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6**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수사’이다.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는 ‘관형사’이다.

**07** 용언 중 명령의 의미를 지니도록 활용할 수 없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앉자)는 동사에 해당하므로, ‘앉아라’와 같이 명령의 의미를 지니도록 활용할 수 있다.

**08** ㉢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우리말의 아홉 가지 품사 중 홀로 쓰일 수 없는 품사는 ‘조사’이며, 조사는 다른 말의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09**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단어는 ‘조사’로,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는 ‘이’와 ‘을’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⑤ ‘자’는 감탄사이다.

<b>소단원 핵심문제</b>					<b>120~121쪽</b>	
<b>01</b> ②	<b>02</b> ③	<b>03</b> ③	<b>04</b> ④	<b>05</b> 해설 참조		
<b>06</b> ②	<b>07</b> ④	<b>08</b> ⑤	<b>09</b> ②	<b>10</b> ②	<b>11</b> ②	

③, ④, ⑤ '떠올리자'는 동사이다.

10 '오냐'는 아랫사람의 부름이나 물음, 부탁에 대하여 대답할 때 하는 감탄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아차'는 잘못된 것을 깨달은 '느낌'을 나타낸다.

③ '응'은 '대답'을 나타낸다.

④ '여보게'는 '부름'을 나타낸다.

⑤ '이야'는 아픔의 느낌을 나타낸다.

11 '쿨쿨', '드르렁', '드렁드렁'은 모두 부사이다. 부사를 적절히 사용하면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되며 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묘사되는 효과가 있다.

소단원 서술형

122쪽

01 ㉠과 ㉡은 모두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편 ㉠은 동사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은 형용사로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2 제시된 문장은 (보)조사인 '만'과 '도' 때문에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만'은 지우가 다른 것은 제외하고 짜장면만 시켰다는 의미를 더하고, '도'는 이미 있는 것에 짜장면까지 더해 시켰다는 의미를 더한다.

03 ㉠의 '늦었다'는 동사이다. 왜냐하면 이는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의 '늦었다'는 형용사이다. 왜냐하면 이는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01 ㉠(예쁜)은 '형용사'이며, ㉡(입었다)은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에 해당하는 품사로서 문장에서 주어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의 품사를 정확하게 쓴 경우	1점	5점
㉠과 ㉡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과 ㉡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보기>에 제시된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보조사인 '만'과 '도' 때문에 발생한다. '만'은 다른 것은 제외하고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의미를 더하고, '도'는 이미 있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포함한다는 의미를 더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과 ㉡의 의미 차이를 만드는 단어와 그 품사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5점
㉠과 ㉡의 의미 차이를 만드는 단어가 문장에 더하는 의미를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3 ㉠의 '늦었다'는 의미상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의 '늦었다'는 '시간이 알맞을 때를 지나 있다.'와 같이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한편 ㉠의 '늦었다'는 명령과 청유의 뜻으로 쓰일 수 있고, ㉡의 '늦었다'는 명령과 청유의 뜻으로 쓰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의 '늦었다'의 품사와 판단 근거를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6점
㉡의 '늦었다'의 품사와 판단 근거를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2) 매체로 소통하기

지식 쏙쏙 확인 문제

123쪽

01 정보    02 맥락    03 ⑤    04 (1) × (2) ○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124~125쪽

- 01 ④    02 ②    03 상호 작용적 매체    04 ④    05 ③  
06 ④

- 01 (가)의 게시 글은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라는 점, 은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견학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은결중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 02 (가)에서 시우는 정보 전달이라는 소통 목적에 맞게 중요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제시하였다.
- 03 (가)와 같이 정보 또는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매체를 뜻하는 말은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에는 학교나 학급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이 있다.
- 04 (나)의 내용으로 보아 시우는 애니메이션 박물관에 다녀온 뒤 느낀 점을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 05 (나)에서 시우는 친구에게 편하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편한 말투로 소통하고 있다.
- 06 ㉠과 같은 이모티콘은 작성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126~131쪽

- 01 ②    02 ②    03 ③    04 ④    05 정보, 느낌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①    11 반말, 목적  
12 ②    13 ②    14 ①    15 ②    16 ⑤  
17 ②

- 01 (가)에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된 문의와 답변이 댓글로 달려 있다. (가)의 댓글에서 시우가 올린 글과 관련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02 소통 참여자의 별명은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고려해야 할 소통 맥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 03 (나)에 사용된 매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다.
- 04 (가)와 (나)의 소통 맥락을 고려할 때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고 (나)는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이다.
- 05 (가)와 (나)의 소통 맥락을 고려할 때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며, (나)는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 06 시우는 (나)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편하고 간결한 말투로 공유하고 있다. 시우는 (나)에서 요점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07 시우와 형은이는 (가)에서 서로 존댓말로 소통하다가 (나)에서는 반말로 소통한다. 이처럼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이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른 까닭은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고 (나)는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08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공간)은 비교적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격식을 갖추어 정돈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9 (가)와 (나) 모두 온라인 대화방에서 소통하고 있으므로 소통에 사용된 매체가 같다.
- 10 (가)에서 시우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소통 목적임을 알 수 있다.
- 11 (가)에서 진서와 아진이는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말을 쓰고 있으며, 아진이는 정보 전달이라는 소통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 12 (나)에는 견학에 관한 기대감, 만나는 시간, 시우에 대한 걱정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견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 13 (나)에서 진서는 새벽 두 시라는 너무 늦은 시간에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 14 새벽에 학급 대화방에 개인적인 질문을 올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위이며 소통 목적에도 어긋난다. 매체에서 소통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소통 목적에 맞게 소통해야 한다.
- 15 소통 맥락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않기'는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16 <자제해>에서는 학급 대화방에서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하고, 언어 예절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17 매체로 소통할 때 항상 존댓말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소통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친밀한 사이인 사람들과 비교적 사적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경우에는 서로 반말을 써도 좋다.

소단원 핵심문제

134~135쪽

- 01 ②    02 해설 참조    03 ②    04 ④    05 ④  
06 ④    07 ⑤

- 01 (가)에서 시우는 격식을 갖추어 '...입니다.'와 같은 정돈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③, ④ 형은이와 은기는 격식을 갖추어 존댓말로 시우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⑤ 형은이와 은기는 글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02 (가)의 매체(학교 누리집), 주된 소통 목적(정보 전달)을 고려할 때 (가)에 사용된 매체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가)에 사용된 매체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 03 (나)의 소통 참여자는 시우와 시우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방문자이다.

- 04 이 대화는 견학과 관련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모임 약속, 견학을 앞둔 느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화이다.
- 05 이 대화에서 진서의 소통 방식상 문제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늦은 시간인 새벽 두 시에 글을 올렸다는 점이다.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하여 소통할 때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언어 예절을 지켜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진서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는 소통 목적에 맞게 대화하고 있다.  
② 이 소통 공간은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정서를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 06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에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소통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공간에서는 격식을 갖추어 정돈된 말투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항상 편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7 상호 작용적 매체를 이용하여 소통할 때에는 언어 표현이 정확하고 적절해야 한다. 줄임말을 항상 사용할 경우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소단원 서논술형

136~137쪽

- 01 진서의 소통 방식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공간에서 반말을 썼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10시부터 관람이니까 가는 데에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건가요?'와 같이 고쳐 말해야 한다.
- 02 시우가 ㉠과 같이 말한 까닭은 아진이가 정보 전달이라는 소통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 03 형은이는 (가)에서 시우에게 존댓말을, (나)에서는 반말을 쓰며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형은이의 소통 방식은 적절한데,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공간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써야 하며 (나)는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구끼리는 반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01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은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공간으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은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진서는 시우에게 반말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소통 공간의 특성과 연관지어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5점
진서의 말을 바르게 고쳐 쓴 경우	2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시우는 ㉠에서 아진이에게 사적인 대화를 자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 까닭은 아진이가 정보 전달이라는 소통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진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에서 지적하고 있는 학생의 이름을 바르게 쓴 경우	2점	4점
소통 목적과 관련지어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3 형은이는 (가)의 댓글에서 시우에게 존댓말을, (나)의 댓글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형은이가 이처럼 소통 방식을 달리한 까닭은 소통 공간의 특성 때문이다. (가)는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기 때문에 댓글에서도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나)는 비교적 사적이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고려할 때, (가)와 (나)의 댓글에서 형은이가 소통 방식을 달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소통 방식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밝혀 쓴 경우	2점	6점
소통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소통 방식의 적절성을 바르게 평가한 경우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한 걸음 더 확인 문제**

138~139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①    05 ④

01 첫 번째 질문과 답변 내용에 따르면 ‘네’나 ‘예’는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또는 윗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에 동의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다.

02 ‘네’와 ‘예’는 동의어이므로 쓰임새에 차이가 없다. 즉 ‘네’와 ‘예’는 같은 상황에 사용되는 말이다.

03 ②의 ‘크다’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뜻으로 쓰인 동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04 형용사인 ‘착하다’는 명령형 어미가 붙지 않으므로 ‘착해라’는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다만 ‘착하다’ 뒤에 ‘지다’가 붙어 ‘착해지다’로 바뀌면, 동사적 의미로 바뀌게 되어 쓰임이 자연스럽다.

05 세 번째 질문과 답변 내용에 따르면 ㉠(착해져라)은 형용사인 ‘착하다’에 ‘-어지다’가 붙어 동사적 의미를 지닌 모양으로 바뀐 뒤, 명령형 어미인 ‘-어라’가 붙은 형태이다.

**대단원 종합 문제**

140~143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④    08 ③    09 ④    10 ④    11 ②  
 12 ③    13 ②    14 ⑤    15 해설 참조    16 ②  
 17 ③    18 ③    19 ②

01 제시된 문장은 체언(이곳, 마음, 하나), 관계언(에서, 이, 로), 용언(간절한, 모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언과 수식언은 쓰이지 않았다.

02 ‘들려줄게’와 ‘뛰어’는 모두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이'는 관형사이다.

② '종일'과 '콩닥콩닥' 모두 부사이다.

③ '어머'는 감탄사이며, 감탄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품사는 명사인데, '종일'은 부사이다.

**03** <보기>는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수사)가 있다. '세 명'에서 '세'는 의존 명사인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⑤ 대명사 ② 명사 ③ 수사

**04**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멋있다)과 ㉡(빠르네)은 모두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오답 피하기** ㉠, ㉡, ㉢은 형용사, ㉣, ㉤은 동사이다.

①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동사인데, ㉠은 형용사이므로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을 수 없다.

③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인데, ㉢은 형용사이다.

④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동사인데, ㉤은 형용사이다.

⑤ ㉣, ㉤ 모두 용언이므로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할 수 있다.

**05** '먹는다'는 문장에서 주어(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문장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면 용언에 해당한다. 또 동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면 동사에 해당한다.

**예시 답안** '먹는다'를 문장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나누면 용언이고,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면 동사이다.

**06** '배려하는(배려하다)'은 형용사가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07** '참', '못', '만날', '과연'은 모두 부사이다. '옛'은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08** ㉠은 수식언인 '현', '아슬아슬'을 포함한 ㉡보다 의미가 자세하지 않다. 수식언이 쓰인 글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느낌이 든다.

**09** 밑줄 친 단어는 모두 감탄사에 해당한다. 감탄사는 다른 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느낌이나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낸다. 체언 뒤에 붙어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은 '보조사'이다.

**10** <보기>의 문장은 '우리(대명사), 어느(관형사), 곳(명

사), 예(조사), 앉을까(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④도 '어떤(관형사), 학생(명사), 이(조사), 너(대명사), 를(조사), 기다린다(동사)'로 <보기>의 문장에 쓰인 품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관형사), 반찬(명사), 엄청(부사), 맛있다(형용사)

② 그(대명사), 는(조사), 키(명사), 가(조사), 커서(형용사), 잘(부사), 보인다(동사)

③ 저(감탄사), 혹시(부사), 저(대명사), 를(조사), 찾으셨나요(동사)

⑤ 첫째(수사), 로(조사), 중요한(형용사), 것(명사), 은(조사), 문해력(명사), 이다(조사)

**11** ㉠~㉤은 모두 조사이며, ㉠은 주격 조사, ㉡은 보조사, ㉢은 서술격 조사 '이다'에 연결 어미인 '-고'가 붙은 형태이다. 서술격 조사인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오답 피하기** ① 앞말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것은 ㉣(보조사)이다.

③ ㉠~㉣ 모두 홀로 쓰일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된다.

④ ㉠~㉣ 모두 다른 단어를 꾸며 주지 않는다.

⑤ ㉠~㉣은 모두 관계언으로, 다른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12** ㉠과 ㉡ 모두 경우에 따라 듣는 이와 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과 ㉡는 모두 차별적 표현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담고 있는 성차별적 표현이며, ㉤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포함된 차별적 표현이다. 차별적 표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듣는 이와 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12** 달린 댓글의 개수는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 고려해야 할 소통 맥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13** 상호 작용적 매체에서 소통할 때에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맞게 말을 해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민지). 또한 학급 누리집과 같이 공적인 공간에서는 나이나 친분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세현).

**오답 피하기** 예: 이모티콘은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우: 친한 친구와 대화 할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시우의 글이 게시될 학교 누리집 게시판은 공적인 공간이므로, 소통 대상과의 친분에 관계없이 격식을 갖추어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15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소통 목적은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견학한 뒤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 예시 답안 |** 소통 목적은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견학한 뒤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려는 것이며, 소통 공간의 특성은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16 이 글에 사용된 매체는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끼리는 반말을 쓰거나 편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17 (가)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신청자들은 9시까지 등교한 뒤 10시부터 관람을 할 예정이다.

18 (가)에서는 참여자들이 대부분 격식을 갖춘 말투로 말하고 (나)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반말을 쓰는 등 소통 방식에 차이가 난다. 이는 (가)와 (나)의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공간이고 (나)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19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을 신청한 학생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방이므로 은기의 질문은 목적에 맞으며, 공적인 공간에서 격식을 갖춘 말투로 질문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아진이는 비교적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질문을 하여 소통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아진이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③ 시우는 소통 목적과 공간의 특성에 맞지 않는 대화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이며 언어 예절을 해치지 않았다.

④ (나)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올리는 것은 소통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⑤ 형은이가 (가)와 (나)에서 말투를 달리한 것은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맞게 소통 방식을 달리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 4 성장하는 우리

### (1) 멍키 스페너

지식 속속 확인문제

146쪽

01 (1) 문제 (2) 고민 02 ① 03 (1) ○ (2) ○

02 성장을 다른 작품에 담긴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작품과 작품에 담긴 인물의 성장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인물의 행동을 모두 따라한다는 것을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147~160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⑤ 10 ㉠ 세면대, ㉡ 머리카락  
 11 ⑤ 12 ③ 13 해설 참조 14 ④ 15 ①  
 16 ③ 17 ② 18 ⑤ 19 ① 20 ⑤ 21 해설  
 참조 22 ③ 23 “언니, 애 어떡해?” 24 ① 25 ②  
 26 ④ 27 ① 28 ③ 29 ⑤ 30 “별것도 아니네.”  
 31 ③ 32 ④ 33 ③ 34 ④ 35 멍키 스페너  
 36 ④ 37 ③

01 이 글은 ‘소설’로, 소설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꾸며 낸 이야기라는 특징을 지닌다.

**| 오답 피하기 |** ① 희곡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④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⑤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02 ①은 ‘근심이나 걱정 따위가 없고 사는 것이 편안하다.’라는 의미이다. (가)에서 ‘나’가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에 안 계신다고 말하며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때문에 ①과 같이 생각했다고 볼 수 있다.

03 (가)에서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여덟 살쯤 됐으면...'과 같은 표현에서 한아가 여덟 살임을 알 수 있다.

②, ⑤ (가)에서 '나'가 한아와 같은 여덟 살 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나'가 비교적 일찍 철이 들고, 여덟 살 때부터 동생을 돌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라는 엄마의 말에서 알 수 있다.

04 (다)에서 '나'가 동생이 부르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 동생을 잘 챙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가)~(다)에서 '나'가 처한 상황은 엄마가 집에 안 계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혔다는 것이다. ⑤는 (가)~(다)에서 확인할 수 없다.

06 (라)에서 '나'는 한아에게 반찬을 아껴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말았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마)의 '한아는 머리가 제법 길다.' '사실은 나도 머리가 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의 '그리고 보니 어제 오늘 ... 내 머리도 감고 한아 머리도 감겼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의 '한아는 머리가 제법 길다. ... 내가 못 그러게 막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짧은 머리를 한 '나'를 보고 친구들이 '자르지 말지. 너 얼굴 엄청 커 보여.'라고 반응한 데서 알 수 있다.

07 (라)에서 '나'가 세면대가 막힌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면대가 막힌 것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의 앞뒤 내용을 고려할 때, '나'는 반찬을 아껴 먹는 것보다 세면대가 막힌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은 세면대가 막힌 것을 의미한다.

09 ㉠은 '나'가 엄마의 야단에도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는 계기가 된 일이다. (마)에서 '나'는 초등학교 때 머리를 짧게 자른 '나'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한 말에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고 하였으므로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10 (라)에서 '나'는 전등불이 나간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샤워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급한 대로 세면대(㉡)에서 머

리를 감았다고 하였다. 세면대가 막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나'는 (바)에서 세면대에 머리를 감을 때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 때문에 세면대가 막힌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11 (사)에서 '나'가 주인 할머니에게 집의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만년철물점에 갔음을 알 수 있다.

12 (아)에서 '나'는 한성설비 사장님의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의 전 재산은 1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⑤ (사)~(아)에서 만년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는 '나'의 말을 듣고 한성설비에 가 보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청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13 (아)에서 '나'는 세면대 뚫는 일을 '고작 머리카락 좀 빼주는 일'이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성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 출장비가 예상보다 비싸 ㉠과 같이 몹시 놀란 것이다.

**|예시 답안|** 예상보다 출장비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14 (차)에서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을 하되 아주 약간만 가여운 척'하려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차)에서 '나'는 돈을 쓰지 않고 관리 사무소에 부탁하여 세면대를 고쳐 보려고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가여운 척하려고 하였다.

② (자)의 '후문 앞까지 왔는데도 ...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차)의 '엄마는 나를 붙잡고 여러 번 얘기했다. ...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 주지 말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자)에서 '나'가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을 두고, '양심상 그러는 거 안되는 거 아닌가.'와 같이 생각한 데에서 이를 부정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이 글에서는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16 '나'는 집에 엄마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던 엄마의 당부가 떠올라 당황하여 ㉠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따라서 ㉠에서 '나'는 집에 자신과 한아만 있다는 사실을 말

할 뻔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17 ㉠에서 '나'는 누군가 자신을 뒤따라오고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길을 빙빙 돌아 집으로 가고 있다.

18 (카)에서 '나'가 임신하여 힘들어 보이는 외숙모의 모습을 보고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온 건데'라고 말하며 ㉠과 같이 생각한 것으로 볼 때, 만삭으로 힘든 외숙모에게 저녁을 차리게 하여 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카)에서 '나'의 엄마와 외삼촌이 일 때문에 광주로 내려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카)의 '엄마랑 외삼촌은 ...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엄마가 외삼촌이 일 때문에 광주에 내려갔음을 알 수 있다.

㉢ (카)의 '한아는 김치찌개 안에 있는 콩치를 세 토막이나 먹었다.'에서 한아가 외숙모가 차려 준 밥을 맛있게 먹었음을 알 수 있다.

㉣ (타)의 '나도 한 번도 안 먹어 본 과자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가서 만 원짜리를 내밀었다.'에서 '나'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음을 알 수 있다.

㉤ (카)의 '외숙모가 전화를 했다. 한아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했다.'에서 '나'가 저녁을 먹기 위해 외숙모의 집으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20 (타)의 내용으로 보아, ㉠은 엄마가 준 돈이 아직 그대로 있어서 한아에게 비싼 과자를 사 주려고 한 행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21 힘들어 보이는 외숙모가 저녁을 차려 주는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느끼고, 외숙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집에 생긴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어른스러운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다/어른스러운 성격이다

22 (파)와 (하)의 내용을 고려할 때,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 고칠 마음을 먹고 공구를 빌리기 위해 자전거 가게에 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23 '나'는 "언니, 애 어떡해?"라는 한아의 말을 듣고 세면대를 스스로 고쳐 보겠다고 마음먹는다.

24 '나'는 자전거 가게에서 멩키 스패너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 왔다.

**|오답 피하기 |** ㉡ (하)에서 '나'는 세면대를 뚫는 데에 '멩키 스패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자전거 가게에서 빌린다.

㉢ (하)에서 '나'는 한아의 근심 어린 말과 눈빛에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세면대를 스스로 뚫기로 결심하였다.

㉣ (하)에서 '나'가 한아의 연필깎이를 고쳐 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에서 '나'가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은 스무 개쯤 찾아보고, 얼추 따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은 '나'가 연필깎이를 고친 것처럼 세면대도 고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므로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26 ㉠에서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 뚫기 전 세면대를 뚫는 방법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본다. 이를 통해 '나'가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동영상을 찾아보며 세면대 뚫는 방법을 익힌 것은 '나'이다. 한아는 '나'가 세면대를 뚫는 동안 곁을 지키며 '나'를 도왔다.

28 ㉠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세면대를 막고 있던 머리카락 뭉치를 가리킨다. ㉤은 말 그대로 어두침침한 세면대 아래를 일컫는 말이다.

29 '나'는 냄새가 지독한 머리카락 뭉치를 본 뒤, 한아에게 ㉡와 같이 말한다. 이는 언니로서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말로, 한아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30 '나'는 세면대를 뚫은 후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세면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 냈다는 뿌듯함이 담겨 있다.

31 (차)에서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지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엄마의 당부가 떠올라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나온다.

32 (티)에서 '나'가 할머니께 화장실 전구를 달라고 하고, '내친김에 나머지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에서 세면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경험으로 자신감을 얻어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문제까지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나'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문제도 해결하려고 철물점에 찾아가는 것이다.

- 33 ㉠은 세면대를 뚫을 때 옆을 지킨 한아가 성장했다고 느껴져, 한아가 어린아이 취급받지 않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가 한 행동이다. ㉠에서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유리컵을 쓰게 하려는 생각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34 ㉠은 '나'가 세면대가 막히고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 한아를 목욕시키며 본 것이다.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의 상황이므로 ㉠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35 '나'가 세면대를 뚫는 데에 사용한 도구는 '멍키 스패너'이다. 또한 '나'가 '스패너를 손에 쥐고 ...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말한 데에서 멍키 스패너가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도구임을 알 수 있다.
- 36 이 글에서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결국 세면대를 스스로 고쳐 내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나'는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므로, 불가능한 일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경험이 끼친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다.
- 37 ㉠은 '나'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한 행동이다. ㉠ 이전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라고 한 데에서 화장실 세면대가 막히고 전등불이 나간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뿌듯한 마음에 ㉠처럼 웃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161~163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성찰    06 ③  
07 그들이 넓은 큰 나무    08 ③

01 이 소설에서는 엄마가 일을 하러 떠난 날에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다음날 화장실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년철물점 주인 할머니와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나'는 스스로 세면대를 뚫기로 결심하고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본 뒤(㉣), 자전거 가게에 가서 멍키 스패너를 빌려(㉤) 세면대를 뚫고 화장실 전구까지 교체한다.

- 02 이 글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어른을 찾아가거나,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 보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결국 세면대를 스스로 고쳐 내었다. 따라서 자신의 노력을 '운' 때문이라 여겼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03 이 소설에서 '멍키 스패너'는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어 '나'를 성장하게 한 도구이다. 멍키 스패너가 '나'의 마음을 침착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볼 만한 내용은 이 소설에서 확인할 수 없다.
- 04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 뚫은 경험을 통해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05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자신의 생각과 생활 태도 등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 06 이 시는 '어떤 ...을 하고 나면'과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이 시에서 포용력 있는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은 '그들이 넓은 큰 나무'이다. 그들이 넓은 큰 나무는 많은 사람들을 편히 쉬게 해 준다는 특성이 있다.
- 08 이 시는 포용력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즉 어른스러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③과 같은 반응이 가장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문제

166~168쪽

- 01 ①    02 ④    03 ②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②    07 ③    08 ④    09 해설 참조    10 ②

01 (가)의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에서 현재 ‘나’의 엄마가 집을 비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옆구리에 혹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에서 동생 한아와 단둘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다)에서 ‘나’는 집 화장실의 전등불이 나가고, 이어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설상가상’이다.

**|오답 피하기|**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남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③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⑤ 조삼모사(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03 ‘혹’은 짐스러운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에서 ‘나’는 동생을 ‘혹’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동생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나)에서 엄마가 집을 비운 날 화장실 전등불이 나갔다는 문제 상황이 나타나며, (다)에서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문제 상황이 연달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혔다.

05 (다)에서 ‘나’는 한성설비 사장님의 출장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자 한성설비에 가는 것을 내키지 않아 했을 뿐, ‘나’가 짜증이 났다고 볼 만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가)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물점에 찾아가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그런 뒤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라)에서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하였으므로, ‘나’에 관해 적절하게 설명한 학생은 ‘두리’이다.

**|오답 피하기|** 하니: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엄마가 밖에 계신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는 엄마의 당부를 어기지 않으려고 한 거짓말일 뿐 관리 사무소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짓말은 아니다.

세면: ‘나’는 한성설비 사장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관리 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07 (가)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물점에 찾아가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라)에서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8 (나)~(다)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 상을 찾아보고, 세면대를 뚫을 때 필요한 도구를 사전저 가게에서 빌려오는 등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하였다.

09 ㉠은 ‘나’가 세면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고친 뒤 한 말로, 뿌듯함과 자신감 있는 태도가 드러난다.

**|예시 답안|** 세면대를 스스로 고쳐 내어 뿌듯하다.

10 이 글은 ‘나’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성장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는 ㉡가 가장 적절하다.

**소단원 서-논술형**

169~170쪽

01 (가)에서 ‘나’는 멍키 스페너로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는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02 ㉠의 원관념은 어른스러움이며, ㉠과 같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포용력이 있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03 (가)에서는 ‘나’가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고장난 것들을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모습에서 ‘나’가 성장했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에서는 ‘나’가 어떤 말, 생각, 행동을 하고 나서 어른스러움을 느끼며 ‘그늘이 큰 나무’가 된 것 같다고 표현하는 데에서 ‘나’가 성장했음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성장을 다룬 작품 읽기는 독자가 작품 속 인물의 성장 과정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자신의 생각, 생활 태도 등을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01 (가)에서 ‘나’는 화장실에 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에 부딪친다. 주변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5점
그 경험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은 ‘어른스러움’을 빗댄 표현이다. ㉠은 그들이 넓은 만큼, 많은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 같은 사람이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나)에서 ㉠의 원관념을 바르게 찾아 쓴 경우	2점	5점
㉠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3 (가)에서 ‘나’는 여러 노력 끝에 결국 막힌 세면대를 직접 뚫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나’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나’는 어떤 말, 생각, 행동을 하고 난 뒤 자신의 모습이 어른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그늘이 넓은 큰 나무’에 빗대어 표현하여 자신이 성장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가), (나)와 같이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면 독자는 작품 속 인물의 성장 과정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자신의 생각, 생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을 성찰할 수 있고,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생각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에 나타난 ‘나’의 성장 경험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6점
(나)에 나타난 ‘나’의 성장 경험을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성장’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성장을 다룬 작품 읽기의 효과를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2) 존중하며 말하기

지식 쏙쏙 확인문제

171쪽

01 언어폭력 02 (1) ○ (2) × 03 ㉡ 04 배려

02 존중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는 존중하는 표현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소단원 본문 학습 확인문제

172~173쪽

01 ㉢ 02 ㉣ 03 ㉢ 04 ㉢ 05 ㉠ 06 분위기

01 ㉡에서 도윤이는 춤 영상을 찍는 도중 동작을 자꾸 틀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사과하였다.

02 ‘고소함’은 미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유쾌하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에서 도윤이는 춤 동작을 계속 틀려 친구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도윤이가 ‘고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은 도윤이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은 도윤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04 하울이는 실수를 한 도윤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윤이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말리고 도윤이를 격려하고 있다.

05 ㉠은 하울이가 도윤이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려 도윤이를 격려하고자 한 말이다. 지우와 서준이가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과 같이 말하며 자신을 위로해 준 하울이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06 ㉢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울이의 존중하는 표현 덕분에 서준이와 지우가 도윤이에게 사과를 하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도윤이는 다시 자신감을 얻게 된다.

소단원 학습 활동 확인문제

174~177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①    06 멋진  
 나무, 너구리, 구름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우진

- 01 이 만화에서 하울이는 도운이를 비난하는 서준이와 지우를 말리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도운이를 격려하고 있다. 하울이는 도운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 02 <보기>에 제시된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보기>의 표현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므로 말하는 이의 의도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03 이 만화에서 도운이가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 04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존중하며 말하는 것이다.
- 05 존중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상대방의 처지나 감정을 헤아려 하는 말이다.
- 06 제시된 글은 언어폭력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멋진 나무’, ‘너구리’, ‘구름’은 작성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 07 ㉠~㉣은 모두 성에 따라 정해진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담긴 성차별적 표현이다.
- 08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은 ‘익명성’이다.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언어폭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
- 09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타당한 점은 인정하여 하는 말은 존중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존중하는 말하기 태도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댓글을 통해 타인과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생각이 자

신과 다르더라도 타당한 점을 인정하여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타인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댓글을 달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 11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단원 핵심문제

180~181쪽

- 01 ④    02 괜찮아, 도운아. 잘할 수 있을 거야.    03 ②  
 04 ④    05 ①    06 ①    07 ⑤

- 01 ㉠은 도운이의 처지를 이해하여 한 말로 도운이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니며, 도운이가 ㉠을 듣고 부담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상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은 도운이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이후 도운이가 주눅이 들어 “미안해. 나 때문에…….”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을 들은 도운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신감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반복된 실수에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도 느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02 ‘괜찮아, 도운아. 잘할 수 있을 거야.’는 하울이가 도운이에게 한 말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도운이의 처지를 헤아려 도운이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말이다. 이는 상대방의 처지나 감정을 헤아려 하는 말인 존중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 03 하울이는 도운이에게 “괜찮아, 도운아.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도운이를 다독이고 격려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에 해당한다(㉠). 한편 서준이는 “김도운! 넌 그냥 빠져.”라고 말하며 폭력적인 언어로 도운이를 비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이와 같은 폭력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㉔ 도윤이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영상 촬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친구들에게 계속 사과하고 있다.

㉕ 지우는 “아, 짜증 내! 연습을 한 게 그 모양이야?”와 같이 짜증을 내며 도윤이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4** (가)의 밑줄 친 말들은 모두 상대방을 비난하는 폭력적인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

**05** “남자가 그 정도는 해 줘야지.”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담긴 성차별적 표현으로,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나현이에게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댓글을 달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07** 언어폭력이란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 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㉓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이 없다.

소단원 서는올형

182~183쪽

**01** ㉑은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㉒은 존중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㉑은 도윤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도윤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㉒은 도윤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

**02** ㉑과 ㉒은 모두 (성)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03** (가)의 광고는 인터넷상에서 다는 댓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조심하자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을 쓴 누리꾼은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인데,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이들이 쓴 댓글은 게시 글을 쓴 배우를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더 쉽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1** ㉑은 도윤이를 비난하는 말로,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㉒은 도윤이를 격려하고 다독이는 말로, 존중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㉑과 ㉒이 어떤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5점
㉑과 ㉒이 도윤이의 감정에 주는 영향을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2** ㉑과 ㉒은 모두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담고 있는 성차별적 표현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언어폭력의 영향 가운데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서술하라고 하였으므로, 인간관계를 해친다는 문제점을 포함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㉑과 ㉒이 어떤 표현에 해당하는지 바르게 파악하여 쓴 경우	2점	5점
㉑과 ㉒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03** (가)의 광고는 내가 쓴 댓글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못을 박는 것처럼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악성 댓글을 달지 말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은 악성 댓글을 단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의 댓글이다. 이 댓글은 상대를 비난하거



나 비하하는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디지털 소통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그래서 더 쉽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총점
(가)의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썼을 경우	2점	7점
(나)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바르게 쓴 경우	1점	
그 댓글이 문제가 되는 까닭을 (가)의 주제와 관련 지어 적절하게 썼을 경우	2점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적절하게 썼을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는 경우	-1점	

**한 걸음 더 확인 문제**

184~185쪽

01 ⑤    02 ⑤    03 언어 장애인    04 ④    05 ④

01 이 글에서 차별 표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논의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②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차별 표현으로 ‘반팔 티’, ‘병어리장갑’, ‘결정 장애’를 다루고 있다.

02 ‘반팔 티’는 신체 부위인 팔의 길이에 초점을 둔 차별 표현이다.

03 ‘전문가 2’의 설명에 따르면 병어리장갑은 장갑의 모양을 언어 장애인에 빗댄 차별 표현이다.

04 ‘전문가 1’의 설명에 따르면, ‘결정 장애’에서 ‘장애’는 ‘부족하다’, ‘열등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 ‘장애’를 비하의 뜻으로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차별 표현이다.

05 ‘마무리’ 부분에서 진행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을 신중하게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단원 종합 문제**

186~189쪽

01 ③    02 ④    03 ④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③    07 ①    08 ④    09 해설 참조    10 ③  
11 ⑤    12 ④

01 (나)에서 ‘나’는 한성설비 사장님의 출장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여 ‘한성설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관리 사무소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나’가 한성설비에 방문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다르다.

02 (라)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라)에서 ‘나’가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나’는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당황하고 있다.

② (나)에서 ‘나’는 한성설비 사장님의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할 정도로 놀랐다.

③ (다)에서 ‘나’는 집으로 가면서 진짜로 누가 뒤따라오고 있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⑤ (마)에서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고친 뒤,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하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03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결심한 뒤 막힌 세면대를 뚫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스무 개쯤 살펴보고, 세면대를 뚫는 데에 필요한 도구인 멍키 스패너를 자전거 가게에서 빌린다. 이로 보아 ‘나’가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멍키 스패너)는 ‘나’가 세면대를 직접 뚫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나’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바)에서 ‘나’가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때, ‘나’가 자신감을 갖게 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가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도구이다.

05 이 글은 성장을 다룬 소설로, 작가가 꾸며 낸 인물이 사건을 따라가며 성장을 경험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소설은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다룬 글이 아니므로 ③의 내용은 성장을 다룬 소설 읽기의 가치로 볼 수 없다.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다룬 글은 수필로,

③은 수필과 같은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해당한다.

06 이 글의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의 힘으로 뚫은 뒤 뿌듯함을 느끼고, <보기>의 화자인 '나'는 어떤 말, 생각, 행동을 하고 난 뒤 성장한 듯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07 서준이는 도윤이의 감정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도윤이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고 있으므로 서준이에게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08 괄호 안에는 상대방의 처지나 감정 등을 헤아려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하니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와 같은 표현은 거듭된 실수로 친구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을 도윤이의 처지와 심정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09 ㉠과 같은 표현은 존중하는 표현이다. 존중하는 표현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하는 말로, 존중하며 말하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예시 답안** ㉠과 같은 존중하는 표현은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10 '너구리'는 '배우 ○○○'을 비난하는 '멋진나무'의 악성 댓글에 동조하여 '배우 ○○○'을 함께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배우 ○○○'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11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참여자들이 대면하지 않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표정, 억양 등으로 상대방의 심정을 유추하기 어려워 서로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더욱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12 ㉠과 ㉡ 모두 경우에 따라 듣는 이와 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과 ㉡는 모두 차별적 표현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담고 있는 성차별적 표현이며, ㉡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 포함된 차별적 표현이다. 차별적 표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듣는 이와 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 시험 직전 워크북

### 1 문학과 표현

#### (1) 3월

##### 소단원 꼭지 시험

193쪽

- 01 (1) 이른 (2) 시간 (3) 고요한, 활기찬    02 (1) ○ (2) ○  
 (3) × (4) ○    03 ㉠    04 (1) × (2) ○ (3) ×  
 05 (1) ㉠ (2) ㉡ (3) ㉢    06 (1) 직유 (2) 의인 (3) 은유

##### 소단원 예상 문제

194~195쪽

- 01 ㉡    02 ㉡    03 ㉢    04 ㉡    05 해설 참조  
 06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    07 ㉡    08 ㉡    09 ㉠

01 이 시는 아침(1연), 점심(2연), 하루가 지난 때(4연), 다음 날 아침(5연)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1~4연은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을, 5~8연은 봄눈이 녹은 후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시의 주제는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임을 알 수 있다.

03 1~4연에서는 '잠이 들었다', '나즉 나즉'과 같은 시구를 통해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5~8연에서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 '왁자지껄'과 같은 시구를 통해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4 '하얀 이불'은 1연의 '봄눈'을 빗댄 표현으로, '봄눈'과 '하얀 이불'이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ㄱ). 또한 '산과 / 들이 ... 잠이 들었다'는 사람이 아닌 '산'과 '들'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ㄴ).

05 8연에서 화자는 눈이 녹은 자리에 돌아나 있는 파란 싹들을 '왁자지껄 일어나 있다'라고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예시 답안** | 8연에서 화자는 의인법을 사용하여 파란 싹들이 여기 저기 돌아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06** ㉠은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를 빗댄 표현으로, 물 소리가 낮고 잔잔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07** ㉡는 파란 싹이 돌아난 모습을 ‘...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서 ‘잠자리에서 튀어나온 아이들’에 직접 빗대고 있다. 이를 직유법이라 하며, 직유법이 사용된 문장은 ㉡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⑤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8** [A]에서는 ‘평 평’, [B]에서는 ‘나즉 나즉’이라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보기>에 비해 [C]에는 의인법(해가 ... 이불을 / 모조리 / 걷어 가 버렸다), 은유법(좌아악 깔린 이불)이 쓰였다. 이처럼 비유를 적절히 활용하면 장면을 더욱 생생하고 재미있게 드러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④ 상징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이다.

③ <보기>와 달리 의인법이 사용된 [C]는 장면을 더욱 참신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운율이 주는 효과이다.

## (2) 오우가

### 소단원 쪽지 시험

197쪽

- 01** (1) ○ (2) ○ (3) ×    **02** (1) 형식 (2) 3 (3) 4음보  
**03** (1) 추상적, 구체적 (2) 다양한    **04** (1) ㉠ (2) ㉡  
**05** (1) ○ (2) ○ (3) ×    **06** (1) 우정 (2) 개인

### 소단원 예상 문제

198쪽

-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해설 참조

**01** 이 시의 갈래는 ‘시조’이다. 시조는 고려 시대에 발생한 우리 고유의 시가 양식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의 고정된 형식을 지닌다. 또한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한 음보가 3음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나)에서 화자는 ‘눈서리’에도 변치 않는 ‘솔’을 예찬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의 화자는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핍박에도 꺾이지 않고 독립 운동에 힘쓴 일제 강점기 지식인은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03** ㉠은 다섯 벼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다섯 벼를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다.

**04** 화자는 ‘고난’이나 ‘시련’을 상징하는 ‘눈서리’에도 변하지 않는 ㉠(솔)을 예찬하고 있으나, ㉡을 보며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05** ‘시련’, ‘고난’과 같은 추상적 관념을 ㉡(눈서리)과 같은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상징을 활용하면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으며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예시 답안** |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한다.

##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 소단원 쪽지 시험

200쪽

- 01** ㉠-㉡-㉢-㉣-㉤    **02** (1) ○ (2) ○ (3) ×    **03** (1) 생각 (2) 개성 (3) 형식 (4) 소재    **04** (1) 당황스러움 (2) 답답함 (3) 고마움    **05** (1) 방식 (2) 윤서 (3) 영항

소단원 예상문제

201~202쪽

-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①  
07 해설 참조

01 이 글과 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 ‘내용 마련하기’ 단계에서는 글감으로 고른 경험을 자세하게 정리하며 글에 담을 내용을 마련한다.

- 오답 피하기** ① ‘경험 떠올리기’ 단계에서는 즐거웠던 경험뿐만 아니라 고마웠던 일, 미안했던 일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서와 관련된 경험을 자유롭게 떠올려 본다.  
② ‘글감 정하기’ 단계에서는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을 글감으로 정한다.  
④, ⑤ ‘개요 짜기’,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경험과 정서가 진솔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하고 표현한다.

02 이 글은 엄마가 학교 보안관실에 맡겨 놓은 방석을 꼬리뼈 통증 때문에 가지러 가지 못했을 때 친구 윤서가 빗속을 뚫고 가져와 준 경험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도와준 친구 윤서에 대한 고마움과, 그때의 경험이 자신에게 준 긍정적 영향(다른 사람을 도우려 노력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03 글쓴이는 (가)에서 ‘그 시험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에’, (마)에서 ‘윤서 덕분에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ㄴ). 한편 (라)에서는 윤서와의 대화를 인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ㄷ).

04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쓰는 글은 ‘기사문’이다.

05 (가)에서 글쓴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고로 꼬리뼈가 골절되었다고 하였다. 비가 오는 날 꼬리뼈가 골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② (나)에서 ‘시험이 4교시에 있어서 조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라고 하였다.  
③ (다)에서 글쓴이의 엄마가 방석을 학교 보안관실에 맡겨 놓았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글쓴이가 ‘애도 시험공부를 해야 했을 텐데…….’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윤서는 시험을 앞두고 있음에도 글쓴이에게 방석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꼬리뼈 통증이 심해져 학교 보안관실에 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06 (다)에서 글쓴이는 꼬리뼈 통증이 심해진 탓에 방석을 가지러 가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07 (마)에서 글쓴이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2년 전 윤서가 자신을 도와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글쓴이는 글에 나타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의 가치를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의 가치를 깨달았다.

대단원 예상문제

203~206쪽

- 01 ①    02 해설 참조    03 ④    04 ②    05 ③  
06 해설 참조    07 ⑤    08 ⑤    09 ③    10 ④  
11 ②    12 ②    13 ⑤    14 ④    15 해설 참조

01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줄기가 등장하는 3연에서는 ‘나즉 나즉’과 같은 시어를 통해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경쾌한 물소리를 효과음으로 넣는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② 햇볕에 눈이 녹은 뒤 새싹이 자라난 장면(8연)에서는 ‘왁지지껍’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이 시는 눈이 내리는 아침부터 다음 날 눈이 녹은 점심 무렵까지 시간 순서대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 시의 전반부(1~4연)에서는 차분한 분위기가, 후반부(5~8연)에서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므로 적절하다.  
⑤ 이 시에서 눈은 ‘하얀 이불’, 새싹은 ‘파란 싹’과 같이 표현되어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02 이 시는 1연의 ‘봄눈이 내리더니’와 5연의 ‘해가 떠오르더니’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2연과 6연에서 ‘점심 무렵에는’, ‘산과 / 들이-산과 / 들에’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고, 1연의 ‘평 평’, 3연의 ‘나즉 나즉’과 같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예시 답안 |** '봄눈이 내리더니-해가 떠오르더니'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점심 무렵에는', '산과 / 들이-산과 / 들에'에서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평 평', '나즉 나즉'과 같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해 운율을 형성한다.

**03** ㉠과 ㉡에는 모두 '...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나타난다. ㉣에는 직유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04** 이 시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솔, 눈서리)를 사용하여 '솔의 지조와 절개 예찬'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5** 화자는 ㉠을 인간이 지녀야 할 덕을 지닌 이상적 인격체로 보아 벗으로 삼고 있다. 또한 ㉠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눈서리'를 모른다는 점에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 예시 답안 |** ㉠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07** 이 시는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8** ㉠은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또는 '우정'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의 의미상 '학교에서 받은 우유'와 대조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는 가방에 든 ㉠을 발견하고 5연에서 그때가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하며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②, ③ ㉠은 홀로 집에서 외로움과 배고픔을 느낄 화자를 위해 선자가 넣어 준 것으로,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상징한다.

④ 시인은 이 시에서 ㉠(붕어가 다섯 마리 → 붕어빵)에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또는 '우정'이라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은 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 낸 개인적 상징에 해당하는 소재이다.

**09** 이 글은 엄마가 학교 보안관실에 맡겨 놓은 방석을 꼬리뼈 통증 때문에 가지러 가지 못했는데, 친구 윤서가 빗속을 뚫고 가져와 준 경험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다.

**10** 글쓴이는 (나)에서 갑자기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 비에 당황하고 있고, (다)에서 방석을 가져오지 못해 난처해하고 있으며 (라)에서 자신을 도와준 윤서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11** (나)에서 글쓴이는 방석이 없는 상황에서 비까지 퍼붓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가 겹쳐 오는 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설상가상'이다.

**12**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은 꼬리뼈를 다쳐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해 친구인 윤서가 도움을 준 일이다. (마)에서 글쓴이는 이 경험을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3** 이 글은 글쓴이가 시각 장애 소년들과 만난 경험을 제재로 한 수필로, 앞으로는 더 부딪치고 더 배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둠 속에서 시각 장애 소년들의 동작을 기척으로 느꼈던 글쓴이의 경험과, 그 순간에 느낀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14** ㉠은 글쓴이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에 비유하여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음을 강조한 부분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글쓴이가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관적 깨달음을 표현한 부분이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② ㉠에서 글쓴이는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 같은 단어가 나열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에서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5** 이 글에서 글쓴이는 시각 장애 소년에게 “부딪치면서 배워요.”라는 말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를 깨닫고 있다.

**| 예시 답안 |** 글쓴이는 '부딪치면서 배워요.'라는 말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때 주체적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대단원 만점 도전문제**

207~209쪽

- 01 ②
- 02 ②
- 03 해설 참조
- 04 ③
- 05 ②
- 06 ①
- 07 ③
- 08 해설 참조

01 (가)에서는 ‘파란 짝’을 의인화하여 ‘일어나 있다’고 표현하였고, (나)에서는 ‘술’을 의인화하여 ‘너’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시의 소재로 삼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눈이 온 날의 아침부터 다음 날 점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③ (가)가 시적 대상을 묘사하듯 표현하고 있고, (나)가 시적 대상인 ‘술’을 예찬하고 있다.

④ 대조의 방법으로 한 대상의 가치를 부각하는 것은 ‘술’과 다른 나무들을 대조하고 있는 (나)이다.

⑤ (가)에서는 ‘자장가처럼 들리던’과 같은 직유법을 찾을 수 있지만 (나)에서는 찾을 수 없다.

02 (가)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운율 형성 방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다. (가)에서는 ‘...이/가 ...더니’라는 문장 구조를, <보기>에서는 ‘...에 ...이/가 ...도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에는 ‘비유(은유법)’의 표현 방법이, ㉡에는 ‘상징’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비유와 상징의 표현상 공통점은 모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원관념을 다른 대상인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과 ㉡의 표현상 차이점은 ㉠의 원관념인 ‘봄눈’은 시에 나타나 있고, ㉡의 원관념인 ‘지조’나 ‘절개’는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시 답안|** ㉠과 ㉡의 표현상 공통점은 모두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의 원관념인 ‘봄눈’은 시에 나타나 있으며 ㉡의 원관념인 ‘지조’나 ‘절개’는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 ㉡의 표현 방법에 차이가 있다.

04 제3수의 ‘꽃’은 쉽게 변한다는 특성을 지닌 존재로, 시련이나 고난 등을 상징하는 (나)의 ‘눈서리’와 그 상징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② 제2수에서 ‘물’은 변화무쌍한 ‘구름’이나 ‘바람 소리’와 다르게 맑고 영원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화자는 이러한 ‘물’의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다.

⑤ 제5수의 ‘그’는 대나무를 일컫는 말로, 곧고 사시에 푸르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고려할 때 ‘그’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상징적 의미는 (나)의 ‘술’과 유사하다.

05 (나)에서 글쓴이가 시험을 보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6 ㉠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속담은 ‘갈수록 태산’으로, 이는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②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③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이르는 말이다.

④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⑤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07 글쓴이는 (마)에서 윤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속스러움을 느꼈지만 결국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데 성공한다. 따라서 글쓴이가 결국 윤서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글쓴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할 수 있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예시 답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여 정신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

## 2 요약과 정보 전달

### (1) 요약하며 읽기

#### 소단원 **꼭지 시험**

211쪽

- 01 (1) ○ (2) ○ (3) × (4) ×    02 (1) ㉠ (2) ㉡ (3) ㉢  
 (4) ㉣    03 (1) 살창 (2) 자연 (3) 서남    04 (1) 두 (2) 진  
 흙 (3) 삭제

#### 소단원 **예상 문제**

212~214쪽

- 01 ①    02 ⑤    03 ②    04 ②    05 ⑤    06 ①  
 07 ①    08 해설 참조    09 ④    10 ②    11 ⑤  
 12 해설 참조

- 01 읽기 목적에 따라 요약에 필요한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을 요약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02 <보기>의 글에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어,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국어 수업을 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요약하였다. 이렇게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요약 방법을 '재구성'이라고 한다.
- 03 일반적으로 글에서는 중심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거나 비유를 사용한다. 이처럼 예를 들거나 비유가 사용된 부분은 중심 내용을 담고 있을 확률이 낮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요약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 04 (나)에서 장경판전은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 05 글의 구조상 (가)는 글의 '처음' 부분으로서, 중심 소재를 소개하며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밝히는 부분이다. 이를 고려하여 (가)는 앞으로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를 밝힌 마지막 문장(장경판전의 이모저모를 ... 비결을 알아보자.)을 선택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요약문의 내용으로 보아 (나)에서 문단의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번째 문장(장경판전을 바람이 ... 잘되게 하였다.)을 선택하여 (나)를 요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07 (라)의 중심 내용은 장경판전의 진흙 기와가 내부 온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심 문장은 ㉠이며, ㉡~㉣은 모두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에 해당한다.

08 (마)의 중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앞과 뒤, ... 있게 하였다.)이다. 이를 선택한 뒤에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하는 '앞과 뒤, 위와 아래, 양옆'을 '어느 쪽'으로 일반화하여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마)를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로 판가를 만들어 경판 사이로도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 (마)를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로 판가를 만들어 경판 사이로도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요약 방법은 '선택'과 '일반화'이다.

09 <보기>의 읽기 목적에 따르면 독자는 경판을 쫓아 둔 판가에 막힌 부분이 없는 까닭을 알기 위해서 이 글을 읽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요약한 요약문에는 장경판전의 판가에 막힌 부분이 없는 까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나)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이로, 민사 재판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11 이 교과서의 단원명과 학습 목표, 요약된 내용을 고려할 때 ㉠에는 민사 재판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에 따르면 민사 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① 형사 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② 민사 재판이 법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재판이라는 설명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③, ④ 이 내용들은 모두 민사 재판에 대한 세부 설명이므로 민사 재판의 의미를 설명하는 요약문에 포함되기에는 어색하다.

12 <보기>의 읽기 목적에 따라 이 글을 읽었다면, 요약된 내용에는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예시 답안 |**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와 그에 따른 형량을 결정한다.

(2)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소단원 **꼭지 시험**

216쪽

- 01 (1) ㉠-㉡-㉢-㉣-㉤    02 (1) 목적 (2) 주제 (3) 쉽게  
 (4) 출처    03 ㉠    04 (1) × (2) ○ (3) × (4) ○  
 05 (1) 역사 (2) 출처 (3) 중요도 (4) 시간 (5) 독자 (6) 객관성

소단원 **예상 문제**

217~218쪽

- 01 ⑤    02 해설 참조    03 ③    04 ④    05 ①  
 06 해설 참조

- 01 (가)에서 지수는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지수가 글을 쓰는 목적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 0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에는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는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쓰기 윤리 중 하나이다. 때문에 지수는 ㉠과 같이 정보를 수집할 때 출처도 함께 기록해 두었을 것이다.  
**| 예시 답안 |**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 03 ㉠은 프라이드치킨의 탄생, ㉡는 전기구이통닭이 유행한 까닭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과 ㉡는 모두 프라이드치킨이 유행한 까닭을 설명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두 자료는 서로 관련성이 적어 통합하여 활용하기 어렵다.
- 04 (다)와 (라)에 따르면 간장 양념에 버무린 치킨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하였고, 양념치킨은 그보다 이른 1980년대에 개발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에 들어 식용유가 대량으로 생산되며 치킨의 조리법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치킨의 조리법 변화는 기름의 생산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유행한 치킨은 기름에 튀긴 것이 아니라 기름에 튀기지 않은 치킨인 전기구이통닭이었다.

- 05 글쓴이는 각 문단에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소제목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06 <보기>는 식당 메뉴 가운데 종류가 다양한 음식을 보여 주는 도표로, 치킨의 종류 개수를 언급한 (라)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 도표를 활용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예시 답안 |** (라)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라)에 <보기>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단원 **예상 문제**

219~222쪽

- 01 ③    02 ②    03 ③    04 해설 참조    05 ⑤  
 06 ③    07 ②    08 ②    09 해설 참조    10 ④  
 11 해설 참조    12 ①

- 01 (다)에서 과학적 원리에 관한 다양한 예시를 드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2 (가)는 글의 구조상 ‘처음’ 부분으로, 설명할 대상(장경판전이 팔만대장경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 03 (다)는 문단에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어 주요 내용을 관련지어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요약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다)를 제시된 문장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04 <보기>의 읽기 목적에 따르면 장경판전 창의 위아래 크기와, 앞쪽 벽과 뒤쪽 벽의 큰 창과 작은 창의 위치가 다른 까닭을 포함하여 요약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라)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아 요약한다.  
**| 예시 답안 |** 장경판전의 앞쪽 벽은 아래 살창이 위 살창보다 크고, 뒤쪽 벽은 위 살창이 아래 살창보다 커서 공기가 잘 통한다. 이 때문에 경판이 잘 보관될 수 있었다.



**05**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생긴 문제는 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에 해당한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돈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재판은 대부분 법원에서 담당한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현대 사회에서는 법으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모든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③ (나)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④ (나)에 따르면 판사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는 재판은 형사 재판이다.

**06** <보기>에 나타난 요약 결과로 보아 (가)의 내용을 재판의 의미와 재판의 기능으로 나누어 요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07**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서 글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하여 내용 조직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게 된다.

**08**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 글의 주제는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전기구이통닭을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전기구이통닭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전기구이통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글의 주제와도 맞지 않는다.

**09** <보기>의 자료는 치킨 가격의 상승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와 맞지 않아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외했을 것이다.

**|예시 답안|** 글의 주제와 맞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10** 다른 사람의 글, 자료, 아이디어를 끌어 쓰는 것은 '인용'이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껴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11** (나)에서 표절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예시 답안|** 표절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12** 천희는 온라인 백과사전, 블로그 게시 글의 내용을 이리저리 쪼개고 붙이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글처럼 속여 제출하였다. 이는 짜깁기에 해당하며, 표절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천희는 자신의 글을 새 글인 것처럼 쓰지 않았다.

③ 천희는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썼지만,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표절 사례에 해당한다.

④, ⑤ 천희는 고의로 허위 내용을 퍼뜨리거나,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

**대단원 만점 도전 문제**

223~225쪽

- 01** ④   **02** ①   **03** 해설 참조   **04** ①   **05** ②  
**06** ③   **07** 해설 참조

**01** (라)에서 열전도율이 낮은 진흙 기와가 내부 온도 변화를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더운 곳에서 건축 자재의 열전도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02** (라)에서 진흙 기와의 장점을 보여 주는 일화를 제시하여 장경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고(예지), (가)~(라)에서 독자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져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지성).

**|오답 피하기|** 은찬: 이 글은 문단의 중심 문장이 모두 문단의 맨 앞에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다인: 이 글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지 않았다. 장경판전이 팔만대장경 경판을 잘 보존한 비결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조직하였다.

**03** 제시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경판전이 서남향으로 지어진 까닭을 알아야 한다. 장경판전이 서남향으로 지어진 까닭이 제시된 문단은 (다)이다. 이 문단을 읽기 목적에 맞게 요약하려면 장경판전이 서남향으로 지어진 까닭을 포함하여 요약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건물을

서남향으로 지으면 하루 동안 햇빛이 들어 오는 시간이 길어 공기 중의 습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팔만대장경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 (다)를 중심으로 하여 요약해야 하고 ‘건물을 서남향으로 지으면 하루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 공기 중의 습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팔만대장경 경판을 잘 보존할 수 있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04** <보기>는 재판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 설명하는 사회 교과서의 본문이다. 이를 요약할 때에는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재판의 의미와 재판의 종류로 항목화하여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진한 글자로 처리된 부분을 핵심어로 간주하여 요약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의 예시는 민사 재판의 의미를 부연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를 포함해 요약하는 것은 중심 내용만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요약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05** ㉠과 ㉡은 모두 전기구이통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과 ㉡을 통합하여 활용하였을 것이고, 그 내용이 (나)의 두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다.

**| 오답 피하기 |** ㉠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글을 쓴 목적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이다.

③ ㉠과 ㉡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라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이다.

④ 자료를 통합할 때에는 수집한 매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한다.

⑤ ㉠은 전기구이통닭, ㉡은 프라이드치킨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이므로 같은 대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6** [A]에 제시된 도표에서 앞으로 치킨의 종류가 더욱 많아질 것임을 보여 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7** (가)에 제시된 각 자료의 표현과 (나)의 표현을 비교했을 때, (나)의 글쓴이는 각 자료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다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 (가)에 제시된 각 자료의 표현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다시 서술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만 참고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다 밝히지 않은 점에서는 미흡하다.

### 3 슬기로운 언어생활

#### (1) 품사의 종류와 특성

##### 소단원 **꼭지 시험**

227쪽

- 01** (1) × (2) ○ **02** (1) ㉠ (2) ㉡ (3) ㉢ **03** (1) ㉠ (2) ㉡ (3) ㉢ (4) ㉣ (5) ㉤ **04** (1) 명사, 대명사, 수사 (2) 동사, 형용사 (3) 관형사, 부사 **05** (1) 조사 (2) 감탄사 **06** (1) × (2) ○ (3) ○ (4) ×

##### 소단원 **예상 문제**

228~229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④  
**07** ① **08** ⑤ **09** ① **10** ⑤ **11** ③ **12** 해설  
 참조

**01** 단어는 문장에서의 위치로 분류되지 않는다.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 변화 여부, 문장에서의 기능, 의미적 특성의 세 가지이다.

**02** ‘천사, 너, 첫째’는 체언, ‘옛, 빨리, 몹시’는 수식언, ‘깨끗하다, 읽다’는 용언에 해당한다. 단어를 체언, 수식언, 용언 등으로 나눈 것은 문장에서의 기능에 따라 단어를 분류한 것이다.

**03** ‘갑자기’는 ‘나타났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어느’는 체언 ‘산골’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산골’은 명사이지만, ‘그녀’는 대명사이다.

③ 조사는 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⑤ ‘나타났다’는 동사이며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다.

04 '열'은 체언인 '걸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05 '헌'은 체언인 '상자'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전부'는 용언인 '담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모두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수식언이다.

06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동사와 형용사인데, 그중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이다. ㉠~㉣ 중 형용사는 '커다란'과 '기뻐다'이다.

**|오답 피하기|** ㉠: 대명사, ㉡: 동사, ㉢: 부사

07 '달리기'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첫째'는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08 ㉤은 체언인 '소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은 대명사이다.

09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자',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아라/-어라'를 붙여 쓸 수 없다. ①의 '깨끗하다'는 형용사이므로 '깨끗하자'와 같이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10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들과 달리 '이다, 이지만, 이네, 이구나' 등으로 형태가 변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는'은 앞말이 다른 것과 대조된다는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② '도'는 '더함'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③ '이'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④ '이다' 역시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홀로 쓸 수 없다.

11 <보기>는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사랑'은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어머나', ② '아니요', ④ '앗', ⑤ '야'

12 ㉠과 달리 ㉡에는 부사 '살그머니, 후다닥'과 관형사 '어떤'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식언은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어 문장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진다.

**|예시 답안|** 문장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느낌을 준다.

## (2) 매체로 소통하기

### 소단원 쪽지 시험

231쪽

01 (1) × (2) ○ (3) ○    02 (1) 참여자 (2) 매체 (3) 목적

03 ㉠, ㉡    04 (1) 감정 (2) 편한 (3) 자유롭게 (4) 반말

05 (1) 정보 (2) 존댓말 (3) 댓글 (4) 사적    06 (1) ○ (2) ○ (3) ×

### 소단원 예상문제

232~233쪽

01 ③    02 ①    03 해설 참조    04 ③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③

01 (가)와 (나)는 사용된 매체와 소통 공간의 특성 모두 다르다. (가)는 학교 누리집으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둔 공간인 반면에, (나)는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생각과 느낌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02 (가)와 (나)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우와 형은이가 (가)에서 존댓말을 썼지만 (나)에서는 반말을 쓰는 등 소통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공간에서의 소통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는 학교 누리집에 올라온 게시 글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공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소통 참여자끼리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예시 답안|**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들끼리 존댓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04 이와 같은 매체는 온라인 대화방으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친교 및 정서 표현이 소통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 맥락에 적합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05** 이 대화방에서의 소통 목적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진이는 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때문에 문제가 된다.

**| 예시 답안 |**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목적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06** 진서는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진서가 지녀야 소통 태도와 관련된 노랫말은 ④이다.

**07** 비교적 사적이며 친교 및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라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단원 예상문제

234~237쪽

- |          |      |      |          |          |      |
|----------|------|------|----------|----------|------|
| 01 ④     | 02 ④ | 03 ② | 04 해설 참조 | 05 ②     |      |
| 06 ①     | 07 ② | 08 ③ | 09 ③     | 10 해설 참조 |      |
| 11 ①     | 12 ② | 13 ② | 14 ③     | 15 ④     | 16 ③ |
| 17 해설 참조 |      |      |          |          |      |

**01** <보기>에서 단어를 나눈 기준은 형태 변화 여부이다. ‘어머’, ‘아직’, ‘어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고 ‘자니’, ‘일어나라’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02**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용언으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수식언, ② 체언, ③ 독립언(감탄사), ⑤ 관계언(조사)

**03** <보기>의 ‘두’는 체언 ‘달’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뭇떡깻어’에서 ‘뭇’은 ‘떡깻어’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04** ‘윤지’는 명사, ‘우리’는 대명사, ‘둘째’는 수사이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

**| 예시 답안 |**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05** <보기>와 같이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동사이다. ‘붙잡다’, ‘막다’는 모두 동사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모두 감탄사이다.

③ 모두 부사이다.

④ ‘배고프다’는 형용사이고, ‘입다’는 동사이다.

⑤ 모두 형용사이다.

**06**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조사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고 다른 단어에 붙어서 쓰인다.

**| 오답 피하기 |** ②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③ ‘가’는 주격 조사이다.

④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⑤ 격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가’와 ‘를’의 위치를 바꾸면 ‘그를 그녀가 불렀다.’가 된다. 이 경우에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이 바뀌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07**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②의 ‘새야’는 새를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명사 ‘새’에 부름을 나타내는 조사(호격 조사) ‘야’가 붙은 형태로 감탄사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① ‘여보세요’, ③ ‘아아’, ④ ‘야’, ⑤ ‘네’

**08** (가)는 학교 누리집이므로 학교의 구성원과 소통하고 있는 반면 (나)는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중에는 ‘우형은 0815’와 같이 시우가 아는 사람도 있고, ‘967705012\_1031’처럼 모르는 사람도 있다.

**09** (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댓글을 써야 한다.

**10** (나)의 소통 목적은 친교 및 정서 표현이다. 이모티콘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글쓰기가 ㉠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예시 답안 |** 친교 및 정서 표현이라는 소통 목적을 고려할 때, 이모티콘을 사용해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11** 진서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된 정보인 이동 소요 시간에 관해 질문하고 있으므로, 소통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하였다.

12 이 대화방은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에서 은기는 견학과 관련된 내용을 정중한 말투로 질문하고 있는데, 이는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소통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3 예서와 같이 늦은 시간에도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놓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또한 줄임말을 많이 쓰면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승민이의 소통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

14 (가)에서 '네'와 '예'는 동의어이므로 쓰임새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② '네'와 '예' 모두 올바른 표현이다.

④ '네'와 '예' 모두 부름에 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쓴다.

⑤ '네'와 '예' 모두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또는 윗사람이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말에 동의하여 대답할 때 쓴다.

15 ㉠, ㉡은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형용사이다. 이에 비해 ㉢은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동사이다.

16 '침착하다'는 형용사로,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어지다'의 구성으로 쓰여 '침착해지다'가 되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므로, '침착해져라'와 같이 명령형으로 쓸 수 있다.

17 (다)에서 형용사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다. '건강해지자'는 형용사 '건강하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건강해지다'에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자'를 붙인 것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예시 답안|** 형용사 '건강하다'는 청유형으로 나타낼 수 없지만, '-어지다'와 결합하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어 청유형으로 쓸 수 있으므로 '건강해지자'는 적절한 표현이다.

대단원 만점 도전문제

238~239쪽

-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해설 참조  
06 ④    07 해설 참조    08 ④

01 <보기>에 쓰인 단어는 '우리, 는, 어제, 노을, 이, 예쁜, 그곳, 예서, 우연히, 만났다'로 나눌 수 있다.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그곳(대명사) / 는, 이, 예서(조사) / 어제, 우연히(부사) / 노을(명사) / 예쁜(형용사) / 만났다(동사)'로 나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형태에 따라 '우리, 는, 어제, 노을, 이, 그곳, 예서, 우연히(불변어) / 예쁜, 만났다(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기능에 따라 '우리, 노을, 그곳(체언) / 는, 이, 예서(관계언) / 어제, 우연히(수식언) / 예쁜, 만났다(용언)'로 나눌 수 있다.

02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오답 피하기|** ① '먹자'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②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④ '여기'는 냉장고를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⑤ '이것'은 바나나를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03 '예쁘다'는 형용사이므로 '예쁘자'와 같은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지다'가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앞의 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게 된다. 즉, '예쁘다'가 '예뻐지다'가 되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어 청유형으로 쓸 수 있으므로 '예뻐지자'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동사는 현재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것을 '너도 가니?', '너만 가니?'와 같이 다른 보조사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뀐다.

④ "눈같이 희다."에서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 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나와 같이 가자"에서 '같이'는 용언 '가자'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식언을 삭제하면 문장의 의미가 간단해진다.

04 '금방'은 용언 '돌아올'을 꾸며 주는 부사, '모락모락'은 용언 '피어난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파도(명사), 너(대명사)

③ 두(관형사), 둘째(수사)

- ④ 앓(감탄사), 형(명사)
- ⑤ 맑은(형용사), 현(관형사)

05 ㉠은 대답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가 들어가야 하므로 ‘아니요’가 적절하다. ㉡은 서술어의 자리이므로 형용사인 ‘아니다’의 활용형인 ‘아니오’가 적절하다.

**| 예시 답안 |** ㉠에는 감탄사인 ‘아니요’가 들어가야 하고, ㉡에는 형용사인 ‘아니오’가 들어가야 한다.

06 (가), (나) 모두 온라인 대화방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존댓말로 소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는 친구들과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반말로 소통하고 있다. 이처럼 소통 매체가 같더라도 소통 공간의 특성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07 (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과 관련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서로 존댓말을 쓰고, 소통 목적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예시 답안 |** 진서의 소통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적인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반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아진의 소통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통 목적과 상관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08 (나)는 사적인 공간이며, 그 특성상 생각과 의견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반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ㄷ). 또한 진서가 새벽 시간에 말을 꺼낸 것은 언어 예절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ㄹ).

**| 오답 피하기 |** ㄱ: 진서가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이야기(개인의 생각이나 느낌)를 한 것은 적절하다.

ㄴ: 진서가 소통 내용과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써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 4 성장하는 우리

### (1) 멍키 스페너

#### 소단원 **꼭지 시험**

241쪽

- 01 (1) 인물 (2) 성찰 (3) 성장      02 (1) 문제 (2) 세면대  
 (3) 할머니 (4) 멍키 스페너 (5) 성장      03 (1) × (2) ○ (3) ×  
 04 (1) 성취감 (2) 뿌듯함 (3) 고치는      05 (1) 어른스러움  
 (2) 포용력

#### 소단원 **예상 문제**

242~244쪽

- 01 ③      02 ④      03 해설 참조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③

01 엄마가 장시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다)에서 ‘나’가 자신과 한아를 가리켜 ‘우리 자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나’가 자신이 여덟 살쯤에 아기를 보살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갓난쟁이 아기가 한아라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엄마가 ‘나’와 한아의 머리카락을 테이프로 찍어 내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⑤ (가)의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에서 알 수 있다.

02 (나)에서 ‘나’는 한아를 사람들 눈에 띄게 하고 싶어서 긴 머리를 자르지 못 하게 하고, 집에서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하기 위해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꾸며 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는 한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아이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다)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긴 머리인 ‘나’와 동생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런 뒤 자신과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을 때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에 배수구가 막힌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 예시 답안 |**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을 때 배수구 구

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이 배수구를 막은 것이다.

**04** (다)에서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 위해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자신이 얼추 따라 할 수 있을 법한 방법을 발견한다. 그런데 그 방법을 따라 하려면 멩키 스패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멩키 스패너를 빌린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서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나'에게 멩키 스패너를 빌려주었을 뿐 세면대를 뚫어 주지는 않았다.

② (다)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며 세면대를 고치는 방법을 배웠다.

④ 이 글에서 엄마가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부탁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나)에서 '나'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고,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엄마의 당부를 떠올라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05** (나)에서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엄마가 집에 없다는 것을 어디에도 말하지 말라고 한 엄마의 당부를 어기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06** 이 글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보고, 자전거 가게에서 멩키 스패너를 빌려 와 세면대가 막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7** ㉠은 '나'가 배수관 끝에 늘어져 있는 머리카락 뭉치를 보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한아에게 보여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이러한 '나'의 모습에서 언니로서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08** (다)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뚫은 뒤, 무엇이든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로 보아 '나'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존중하며 말하기

### 소단원 폭지 시험

246쪽

- 01** (1) ○ (2) ○ (3) ×    **02** (1) 무시 (2) 의사소통 (3) 원만  
**03** ㉠, ㉡    **04** (1) ㉠ (2) ㉡ (3) ㉠ (4) ㉡    **05** (1) 상처  
 (2) 자신감    **06** (1) 익명성 (2) 정확하게 (3) 빠르게

### 소단원 예상 문제

247~248쪽

- 01** ③    **02** 해설 참조    **03** ②    **04** ④    **05** ③  
**06** ④    **07** ④

**01** 친구들이 각자 춤 연습을 한 뒤, 모여서 춤 영상을 찍는 도중 도윤이는 계속해서 동작을 틀리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미안해. 나 열심히 연습했는데…….”라는 말에서 도윤이가 춤 연습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② 동작을 계속해서 틀리자 도윤이는 “앗, 미안.”, “헉, 미안해, 애들아.”와 같이 말하며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④ 하울이는 도윤이가 계속해서 실수를 한 뒤에도, 도윤이를 격려하며 영상을 다시 찍어 보자고 하였다.

⑤ 지우와 서준이는 도윤이가 동작을 자주 틀리자 도윤이에게 화를 내고 있다.

**02** ㉠과 같은 말하기는 폭력적인 말하기이다. 폭력적인 말하기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예시 답안|** 도윤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03** ㉠은 하울이가 도윤이를 비난하는 지우와 서준이를 말리고 도윤이를 격려하며 한 말로, 존중하는 말하기에 해당한다. ㉡을 들은 지우와 서준이는 자신의 말하기 태도를 되돌아보고 도윤이에게 사과했을 뿐, ㉠의 영향으로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갖게 되지는 않았다.

**04** 이 만화에서 하울이는 도윤이를 비난하는 지우와 서준이를 말리고, 도윤이를 다독이고 격려하고 있다. 하울이의 말을 들은 지우와 서준이가 도윤이에게 사과하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도윤이는 위로를 받는데, 이러한 점에서 대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㉓에는 ‘포용’, ㉔에는 ‘존중’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05** (가)에서는 배우 ○○○이 쓴 글에 일부 누리꾼이 폭력적인 말하기 태도로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댓글을 단 누리꾼 중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은 글을 쓴 배우 ○○○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댓글을 달았다.

**06** [A]에서 ‘멋진나무’와 ‘너구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때 ‘너구리’가 ‘멋진나무’의 악성 댓글에 동조하며 댓글을 단 것으로 보아,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누군가 악성 댓글을 달면 그에 쉽게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②, ③, ⑤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쉽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으나, [A]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7** “너 여자 맞냐?”라는 현민이의 말과 “남자가 그 정도는 해 줘야지.”,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지.”라는 나현이의 말에서 모두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담긴 차별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차별적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b>대단원 예상문제</b>				249~252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②	08 ④	09 해설 참조	10 ②	
11 ⑤	12 ④	13 ④	14 ②		

**01** ‘나’는 외숙모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외숙모의 집으로 갔다. ‘나’가 외숙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외숙모 집에 찾아간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다)에서 ‘나’가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 찾아보며 세면대 뚫는 법을 익히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나)의 ‘엄마랑 외삼촌은 일 때문에 광주까지 트럭을 끌고 내려갔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만삭으로 힘들어하는 외숙모가 ‘나’와 한아에게 줄 저녁을 차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에서 ‘나’는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한 뒤, (마)에서 내친김에 화장실 전등불이 나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전구를 사러 하고 있다.

**02** ‘나’는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중인 외숙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집에 생긴 문제를 외숙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나’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3** (라)에서 ‘나’는 세면대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수리가 잘된 것을 확인하고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내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04** (바)에서 ‘나’는 멍키 스페너를 꼭 쥐었을 때의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 있고, 스페너로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나’는 멍키 스페너를 활용하여 세면대를 스스로 뚫는 경험을 한 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이로 보아 ‘멍키 스페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 도구이자 ‘나’에게 성장을 경험하게 한 도구를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성장을 경험하게 한 도구이다.

**06** ‘나’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신의 일처럼 해결하는 모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07** ㉓는 화자가 말하는 ‘어른스러움’을 지닌 대상으로, 그늘이 넓은 만큼 많은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㉓는 타인을 배려하고 품을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08** (가)에서 서준이와 지우는 도운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나)에서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가)와 (나) 참여자들의 말하기 가운데 공통적인 문제점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09 서준이와 지우는 도윤이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말로 도윤이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관계를 해친다.

**| 예시 답안 |** 서준이와 지우는 폭력적인 언어로 도윤이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도윤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10 하울이는 “도윤이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틀려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와 같이 말하며, 자신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어 속상하고 미안해할 도윤이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있다.

11 ㉠에서 ‘익명’이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실명 대신에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12 이 대화에서는 일상 속에서 많이 쓰이는 차별 표현을 짚어 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13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문가 1’은 ‘결정 장애’에서 ‘장애’는 부족하거나 열등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장애’를 비하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차별적 표현이라고 설명하였다. ‘장애’라는 단어 자체에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피하기 |** ㉡ ‘반바지’는 바지의 길이가 반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므로 차별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문가 2’는 ‘병어리장갑’에 쓰인 ‘병어리’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 ‘전문가 1’은 ‘반팔 티’라는 말에 팔 길이에 ‘정상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팔 티’라는 말을 차별 표현임을 알 수 있다.

14 이 대화에서 제시된 차별 표현들(‘반팔 티’, ‘병어리장갑’, ‘결정 장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보기 어렵다.

01 (가)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1~3연에서 ‘어떤 말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고 나면’,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과 같이 ‘어떤 ...을 하고 나면’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어른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5연에서 ‘...이/가 ... 것 같다’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어른스러움을 느꼈을 때의 상태를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른스러움(성장)’에 대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02 (가)에서는 ‘나’가 세면대를 스스로 뚫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에서는 ‘어른스러움’을 ‘그늘이 넓은 큰 나무’에 빗대어 남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예시 답안 |** (가)에서 다루는 성장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나)에서 다루는 성장은 남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를 의미한다.

03 ㉠(다저녁때)은 ‘저녁이 다 된 때.’를 뜻하는 말이다.

04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는 남을 돕는 행동, 배려하는 행동, 포용력 있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 친구의 생일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함께 주는 것은 ㉡의 예시라고 보기 어렵다.

05 서준이는 하울이가 자신을 말리는 말을 듣고 도윤이에게 폭력적인 말로 비난한 것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서준이가 도윤이를 오해하였다는 내용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06 ㉠에서 현민이는 요리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담긴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있다. 차별적 발언도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이러한 말을 들은 나현이는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 예시 답안 |** ㉠은 성차별적 표현(언어폭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을 들은 나현이는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07 <보기>의 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에서 서준이는 도윤이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도윤이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고 있으므로, 화자가 서준이에게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대단원 만점 도전문제**

253~255쪽

- 01 ④    02 해설 참조    03 ②    04 ②    05 ④  
06 해설 참조    07 ②

01 ②	02 ⑤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②	07 ⑤	08 해설 참조	09 ①	10 해설 참조
11 ④	12 ④	13 ①	14 ②	15 ⑤
16 ②	17 해설 참조	18 ②	19 ③	20 ①
21 ③	22 ③	23 ③	24 해설 참조	25 ③

01 이 시는 ‘봄눈이 내리더니(1연)-해가 떠오르더니(5연)’처럼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도현). 또한 ‘평 평’, ‘나즉 나즉’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였다(시우).

**|오답 피하기|** 아린: 이 시의 화자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지 않다.

재야: 이 시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평 평, 나즉 나즉, 좌야악)이 나타나지만, 화자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02 ㉠~㉢은 모두 ‘봄눈’을 표현하는 말로, ㉠~㉢은 봄눈을 빗댄 비유적 표현이다. 한편 ㉣은 8연의 ‘파란 싹들’을 빗댄 표현에 해당한다.

03 [A]에는 사람이 아닌 ‘파란 싹들’이 사람처럼 ‘일어나 있다’고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다. ⑤에서는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가 사람처럼 ‘춤을 춘다’고 표현한 의인법이 나타난다.

**|오답 피하기|** ① ‘그는 나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내 마음’과 ‘호수’를 동일시한 은유법이 쓰였다.

② ‘...처럼’을 써서 ‘붉은 입술’을 ‘앵두’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쓰였다.

③ ‘... 같다’를 써서 ‘그 소년’을 ‘거인’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쓰였다.

④ 비유가 쓰이지 않았다.

04 이 시의 전반부인 1~4연에서는 ‘잠이 들었다’, ‘나즉 나즉’, ‘자장가’라는 시어에서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또한 이 시의 후반부인 5~8연에서는 ‘잠자리에서 뛰어 나온 아이들’, ‘왓자지껄’이라는 표현에서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예시 답안|** ㉠에서는 ‘잠이 들었다’, ‘나즉 나즉’, ‘자장가’와 같은 표현에서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에서는 ‘잠자리에서 뛰어 나온 아이들’, ‘왓자지껄’과 같은 표현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05 (가)와 같은 시는 ‘시조’이며, 시조는 일반적으로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오답 피하기|** ① 시조는 고려 시대에 발생한 우리 고유의 시이다.

②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기본 형식에 따라 쓴다.

④ 시조는 4음보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⑤ 시조에서는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어절을 세 글자로 고정한다.

06 (나)에는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는 직유법이 쓰이지 않았다.

07 ㉠은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나 우정을 상징하는 시어로, 시인이 작품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개인적 상징에 해당한다. 반면 ㉡은 지조나 절개를 뜻하는 시어로,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사용되어 온 관습적 상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상징은 추상적 관념(원관념)을 구체적 사물(보조 관념)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 ㉣의 원관념은 추상적 관념이며, ㉡은 지조와 절개, ㉢은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나 우정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드러낸다.

②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상징은 ‘관습적 상징’으로, ㉠만 이에 해당한다.

④ ㉠과 ㉣은 모두 원관념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08 <보기>의 시에서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진눈깨비’이다. ‘진눈깨비’는 부정적 존재 혹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시어로, 나무를 시들거나 죽게 만드는 외부의 힘 혹은 시련, 고난을 뜻하는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시 답안|** <보기>에서 ㉢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진눈깨비’이다. 진눈깨비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 존재를 상징한다.

09 이 글은 글쓴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한 일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다.

**|오답 피하기|** ②, ③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다룬 글로, 갈래상 수필에 속한다.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다.

④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시이다.

⑤ (라)에 ‘고마움’이라는 글쓴이의 정서가 드러나기는 하나, 이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다.

10 ㉣에 들어갈 말은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은 점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경험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은 점은 (마)에 나타나 있다. 글쓴이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2년 전 윤서가 자신을 도와준 경험 덕분이라고 하고 있다.

**| 예시 답안 |**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민에 공감하며 진지하게 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1** ㉠은 쉬는 시간이 끝난 뒤 글쓰이가 바라본 친구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글쓰이가 친구들에게 섭섭함을 느꼈다고 볼 만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을 통해 평소 글쓰이가 방석을 가지고 다니지만, 이날 하루만 방석을 깜빡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몸이 불편하여 방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석을 두고 와 글쓰이가 당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12**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감을 정할 때에는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경험 가운데 경험이 구체적이고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을 정한다(㉡). 또한 글의 개요를 짜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글로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일기나 편지 또는 기행문 등 다양한 글의 형식 가운데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의 경험과 경험에서 얻은 생각, 정서 등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경험한 일을 부풀리는 등 꾸며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글을 요약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글을 더욱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은 요약하며 읽기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14** (나)에서 장경판전은 해인사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바람이 잘 통하는 경사지라고 하였다.

**| 오답 피하기 |** ㉠ (다)에서 장경판전이 서남향으로 지어졌으며, 건물을 서남향으로 지으면 하루 동안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다고 하였다.

㉢ (마)에서 장경판전의 앞쪽 벽과 뒤쪽 벽의 살창 크기를 위아래로 서로 다르게 하여, 장경판전 안 구석구석에 공기가 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가)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나무가 습기에 약해 썩거나 뒤틀리기 쉽다고 하였다.

㉤ (마)에서 장경판전의 앞쪽 벽은 위 창보다 아래 창이 4배 정도 크고, 뒤쪽 벽은 위창이 아래 창보다 약 1.5배 크다고 하였다.

**15** (가)는 글에서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는 ‘처음’ 부분, (나)~(마)는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하는 ‘중간’ 부분, (바)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끝’ 부분이다. 이처럼 각 문단에서 다루는 내용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글의 내용 구조도로 적절한 것은 ㉤이다.

**16** <보기>에서는 ‘바람 속 습기’가 팔만대장경 경판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의 ‘우리 조상들은 바람 속 습기 문제를 ...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해결하였다.’에서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기>는 (다)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다)에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없으므로, 바람 속 습기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었다는 주요 내용을 관련지어 중심 문장을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를 요약하면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 (다)를 요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구성이며,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8** 민영이의 읽기 목적은 ‘장경판전의 진흥 기와가 하는 역할을 아는 것’이므로, 요약한 내용에는 이러한 진흥 기와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문장을 선택한 뒤 ‘장경판전의 지붕에 진흥 기와를 올렸는데, 이’처럼 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 (라)의 마지막 문장에서 진흥 기와가 열전도율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민영이의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중심으로 글을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마)에서 장경판전은 지을 때부터 위치, 방향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어 효과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민영이의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중심으로 글을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라)에서 진흥 기와의 역할을 설명하며 ‘열전도율이 낮아서 바깥 날씨에 따른 내부 온도의 변화가 작’다고 하였으므로 잘못된 진

술이다. 또한 글에서 '구리 기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구리 기와와 진흙 기와를 비교하여 요약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⑤ (라)에서 장경판전의 팔만대장경 경판 보존 비결 중 하나가 '진흙 기와'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민영이의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중심으로 글을 요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㉔를 '일반화'의 방법으로 요약할 때, 단팥빵, 소금빵, 슈크림빵 등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를 그것을 포괄하는 말인 '빵'으로 묶을 수 있다. 이에 따라 ㉔는 '진흙은 빵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㉔는 반복되는 내용인 '동생이'를 삭제하여 '동생이 내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② ㉔는 '나'가 아침에 하는 일들을 바탕으로 하여 '나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④ ㉔는 '정우는 친절하다.'라는 중심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⑤ ㉔를 세호가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한 행동들을 바탕으로 하여, '세호는 수업을 들을 준비를 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20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과정에서 ㉠은 계획하기, ㉡은 글 쓰기, ㉢은 정보 수집하기, ㉣은 정보 통합하기, ㉤은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면 '㉠(계획하기) → ㉢(정보 수집하기) →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 ㉣(정보 통합하기)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과 같다.

21 이 글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로,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다. 또한 글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22 (다)는 1970년대에 유행한 프라이드치킨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치킨이 인기를 얻은 시기에 시장에서 '시장통닭'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시장통닭을 조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23 (라)의 마지막 부분에는 치킨의 종류에 관한 조사 결과가 줄글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보기>와 같은 도표를 함께 제시할 경우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④ <보기>의 도표에는 조사 기간과 조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보기>의 도표는 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고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24 이 글의 글쓴이는 (라)에서 '한 식자재 업체가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 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보기>에 따르면 표절은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글에 참고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시 답안|** 이 글은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등의 일부를 베껴 쓰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25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단계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보를 선별하여 쓰기 목적에 맞는 적절한 글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중요도를 분석해야 하는 까닭으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01 ⑤	02 ②	03 ②	04 ⑤	05 ②	06 해설
참조	07 ②	08 ⑤	09 해설 참조	10 ②	
11 ③	12 ②	13 ②	14 해설 참조	15 ④	
16 ②	17 ④	18 ③	19 해설 참조	20 ④	
21 해설 참조	22 ④	23 ②	24 ③	25 ①	

01 (나)의 제4수에서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눈서리에도 변하지 않는 ‘솔(소나무)’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솔(소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색채를 강조하는 시어를 활용한 것은 (가)로, ‘하얀 이불’, ‘파란 싹들’ 등이 그에 해당한다.

②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은 비유의 종류 중 ‘직유법’에 해당한다. (가)에서는 물소리를 ‘자장가’에, 파란 싹들을 ‘잠자리에서 튀어나온 아이들’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있지만, (나)에 이러한 비유는 쓰이지 않았다.

02 ㉠(나죽 나죽)은 “소리가 꽤 낮은 모양.”을 뜻하는 ‘나직 나직’을 바꿔 쓴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어긋나게 한 시적 허용에 해당한다. (가)에서는 ㉠처럼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보기>는 비유가 쓰이지 않은 표현이고, [A]는 비유를 사용하여 <보기>를 나타낸 표현이다. [A]처럼 비유를 사용할 경우 장면을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드러낼 수 있다. 이때 비유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A]가 <보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4 (가)에 일정한 음보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나)는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제1수에서 다섯 자연물을 ‘벗’으로 표현하여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인 양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⑥ 시의 주제는 ‘다섯 자연물의 덕을 예찬함’이며, 제4수의 주제는 ‘솔의 지조와 절개 예찬’이다.

② 제4수에서 ‘눈서리’는 ‘시련, 고난’을 상징하는 시어일 뿐, 시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06 (나)의 제4수에는 눈서리를 모르고, 구천에 뿌리가 곧다는 ‘솔’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는 ‘솔’이 외부의 환경에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솔’의 특성에서 ‘솔’이 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삶의 태도 등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솔’은 눈서리를 모르고 구천에 뿌리가 곧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삶의 태도(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삶의 태도, 곧은 의지를 지니는 삶의 태도)를 상징한다.

07 (라)에서 ‘나’는 대신 방식을 가져와 준 윤서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나)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에서 중학생이 된 ‘나’가 친구들의 고민 상담을 잘해 준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고로 꼬리뼈가 골절되어 방석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나’가 꼬리뼈 통증이 더 심해져 학교 보안관실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08 글쓴이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고 고민 상담도 잘해 주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이러한 모습이 2년 전 자신을 도와준 윤서 덕분이라는 점을 (마)에서 표현하고 있다.

09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가 잘 드러난 수필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친구 윤서가 꼬리뼈를 다친 자신을 대신하여 학교 보안관실에서 방석을 가져다준 경험을 언급하며 윤서에게 고마움을 느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라)에서 그때 느낀 고마움을 윤서에게 전달하고 있다.

**예시 답안** 이 글에는 친구 윤서가 꼬리뼈를 다친 글쓴이를 위해 빗속을 뚫고 학교 보안관실에서 방석을 대신 가져다준 글쓴이의 경험과 글쓴이가 윤서에게 고마워하는 정서가 드러난다.

10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다.

11 이 글은 갈래상 수필에 해당한다.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기, 편지글, 기행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의 줄글로만 쓸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2 (가)의 마지막 문장에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교실을 정리하는 순서가 나타나 있다. <보기>에서는 아이들이 교

실을 정리하는 순서가 글쓴이의 순서와 달랐다고 하며, 아이들이 교실을 정리하는 순서를 나열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내용은 (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다)에서 글쓴이는 “부딪치면서 배워요.”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신 바로 곁에 ... 온 몸을 내던지는 것.’에서 글쓴이가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를 깨달았음이 드러난다.

**14** (다)의 ‘당신 바로 곁에 ... 온몸을 내던지는 것.’에서 글쓴이가 “부딪치면서 배워요.”라는 말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 새로운 것을 대할 때 주저하지 않고 직접 겪어 보는 삶의 태도를 깨달았음이 드러난다. ㉠에서 글쓴이는 ‘... 뜻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에서 깨어나는 것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 예시 답안 |** 글쓴이는 회원이의 “부딪치면서 배워요.”라는 말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맞서는 삶의 태도(새로운 것을 대할 때 주저하지 않고 직접 겪어 보는 삶의 태도)를 깨달았다. 글쓴이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직유법을 활용해 알에서 깨어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15** (라)에서는 장경판전의 판가와 일반적인 책꽂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글에서 다룬 중심 내용(장경판전이 오랜 시간 팔만대장경 경판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제시하며, 이에 관해 알아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 (나)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장경판전의 경판 보존 비결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장에서 나무로 만든 경판이 뒤틀리거나 썩지 않게 보관하려면 환기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다)의 두 번째 문장에서 ‘그렇다면 ... 어떻게 해결하였을까?’라고 묻고, 이어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해결하였다.’라고 답하며 장경판전의 경판 보존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 (마)의 첫 번째 문장에서 (나)~(라)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6** 이 글은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 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나)에서는 장경판전의 경판 보존 비결을 언급한 두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에 해당한다. 즉, (나)

에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 (가)에는 이 글에서 설명할 내용을 밝히는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므로, 이를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 (다)에는 뚜렷한 중심 문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바람 속 습기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었다는 주요 내용을 관련지어 중심 문장을 만드는 ‘재구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를 요약하면 ‘장경판전을 서남향으로 지어 바람 속 습기 문제를 해결하였다.’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라)에는 중심 문장이 마지막에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이 문장을 선택한 뒤, ‘앞과 뒤, 위와 아래, 양옆’과 같은 표현을 포괄적인 말인 ‘어느 쪽’으로 일반화하여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로 판가를 만들어 경판 사이로도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하였다.’로 요약할 수 있다.

㉤ (마)에는 장경판전에 담긴 의미를 밝힌 중심 문장이 마지막에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마지막 문장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17** 제시된 요약문에는 장경판전의 판가가 어느 쪽도 막히지 않은 구조로 만들어진 까닭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요약문의 바탕이 되는 읽기 목적은 ㉣가 적절하다.

**18** 이 글은 ㉠에서 재판의 의미를, ㉡에서 재판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으며, ㉢에서 ‘재판’, ㉣에서 ‘민사 재판’, ‘형사 재판’과 같이 중요한 단어를 진하게 처리하여 강조하고 있다.

**19** 이와 같은 교과서의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며 핵심어를 파악한 뒤, 그 핵심어와 연관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요약해야 한다. 이 글의 핵심어는 ‘재판의 의미’와 ‘재판의 종류’이므로, 이 글을 요약할 때에는 재판의 의미와 종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예시 답안 |** 이 글을 요약할 때에는 단원명과 학습 목표에 제시된 내용인 ‘재판의 의미’와 ‘재판의 종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요약해야 한다.

**20** (가)는 ‘계획하기’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정한다.

**| 오답 피하기 |** ㉠ ‘표현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정보 통합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정보 수집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 ‘정보의 중요도 분석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21** ㉠은 '양념치킨의 등장', ㉡은 '우리나라 프라이드치킨의 탄생 배경', ㉢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구이통닭집', ㉣은 '다양한 치킨의 종류', ㉤은 '치킨의 열량'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의 정보를 고려할 때, ㉠은 ㉢에, ㉡은 ㉣에, ㉢은 ㉣에, ㉣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은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다룬 자료이므로 글을 쓸 때 제외해야 한다.

**| 예시 답안 |** ㉠은 ㉢에, ㉡은 ㉣에, ㉢은 ㉣에, ㉣은 ㉣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은 글의 주제인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와 관련 없는 자료이므로 제외한다.

**22** (가)에서 글의 목적이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 소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글의 '중간' 부분을 각 시대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 것은 적절하다 (진우).

또한 '중간' 부분에서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 뒤, '끝' 부분에서 앞으로의 치킨의 모습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치킨의 역사'라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흐름상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은서).

**| 오답 피하기 |** 채원: (가)의 학생이 쓰려는 글의 주제와 목적을 고려할 때, '처음' 부분에서는 '국민 음식'이 된 치킨의 역사를 소개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다)의 개요만으로 '처음'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음식'이 무엇인지 소개한다는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내용은 글의 주제에서도 벗어나므로, '채원'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23** (라)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전기구이통닭'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전기구이통닭'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글에서 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 (라)의 첫머리에 '전기구이통닭' 사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진만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4** '시즈닝' 가루 양념을 뿌린 치킨은 19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등장하였다.

**| 오답 피하기 |** ㉠, ㉡ (라)의 첫 번째 문단에서, 1960년대 당시에는 기름이 귀해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치킨 대신 전기구이통닭이 먼저 유행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라)의 두 번째 문단에서 2000년대 이후에 '시즈닝' 가루 양념을

뿌리거나, 파를 곁들여 먹는 치킨이 등장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라)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A]는 글에 활용한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힌 부분이다.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힐 때에는 사진과 도표, 조사/연구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하여 참고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써야 한다.

01 ③	02 ④	03 해설 참조	04 해설 참조	05
①	06 ②	07 ③	08 ③	09 ⑤
10 ③	11 ④	12 ②	13 ①	14 ⑤
15 ⑤	16 ②	17 ③	18 ③	19 해설 참조
20 ①	21 ③	22 해설 참조	23 ②	24 ③
25 해설 참조				

01 이 시의 화자는 1~4연에서 봄눈이 내린 날의 풍경을, 5~8연에서 봄눈이 녹은 후의 풍경을 묘사하며 이른 봄 풍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예나). 또한 1~4연에서는 고요한 분위기가, 5~8연에서는 활기찬 분위기가 나타나며 대비를 이룬다(리아).

**오답 피하기** | 이현: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로운: 화자는 담담하고 평이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02 ㉠에는 산과 들에 쌓인 봄눈을 ‘이불’로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03 운율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형성된다. 이 시에서는 ‘봄눈이 내리더니’-‘해가 떠오르더니’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거나, ‘점심 무렵에는’, ‘산과 / 들이(들애)’에서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거나, ‘평평’, ‘나즉 나즉’과 같이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예시 답안** | ‘봄눈이 내리더니’-‘해가 떠오르더니’와 같이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이’-‘점심 무렵에는 / 산과 / 들애’와 같이 같거나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평 평’, ‘나즉 나즉’ 등 같은 말이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04 이 시에서 ㉠(솔)은 눈서리를 모르고 구천에 뿌리가 곧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로 보아 ㉠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는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 곧은 의지를 지니는 삶의 태도, 지조와 절개를 지니는 삶의 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을 찾을 때에는 고난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지를 지키는 인물을 떠올려 본다. 예를 들어 일제의 핍박에도 꺾이지 않고 독립 운동을 계속한 유관순을 그 인물로 고를 수 있다.

**예시 답안** | ㉠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는 고난과 시련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 인물은 일제 강점기 때 일

제의 모진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 운동을 멈추지 않은 유관순과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05 이 시는 ‘시조’로, 시조는 일반적으로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가 반복되며 운율이 형성된다. <보기>의 시 역시 시조로 ‘까마귀√검다 하고√백로야√웃지 마라’와 같이 4음보가 반복되며 운율이 형성된다.

06 2연에서 화자가 선재를 걱정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07 ㉠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배고픔을 느낄 화자를 위해 선재가 가방에 넣어 준 것으로,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또는 ‘우정’을 상징한다.

08 ‘내용 마련하기’ 단계는 ‘글감 정하기’ 단계에서 정한 글감을 바탕으로 하여 글에 담을 내용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따라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개요 짜기’ 단계이다.

09 (마)에는 글쓴이의 경험이 글쓴이에게 끼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 있으며, (마)의 중심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하는 ‘나’의 현재 모습은 윤서의 영향이라고 생각함.”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글쓴이는 (가)에서 ‘누군가는 이 여름비를 보며 홍수가 일어날까 걱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방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방석을 감박하고 집에 두고 온 것이다.

③ 글쓴이는 방석이 없는 상황에서 비까지 퍼부어서 우울해졌다고 하지는 않았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윤서에게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10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을 도와준 친구 윤서에 대한 고마운 정서가 나타나는 경험 하나만을 제시하고 있다.

11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이 담긴 글을 쓰며 독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는 어렵다. 반면 독자는 글쓴이의 경험이 담긴 글을 읽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12 읽기 목적이 다르면 글을 요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도 달라진다.

13 제시된 글의 중심 내용은 아침밥을 먹을 때 뇌의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심 내용이 담긴 문



장인 ①을 선택해야 한다. ②~⑤는 모두 아침밥을 먹으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부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문장으로 선택하기에 부적절하다.

**14** (마)에서는 장경판전의 판가와 일반적인 책꽂이의 구조를 비교하며 판가를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로 만들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예시를 들며 판가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5** 제시된 읽기 목적에 따라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경판을 쫓아 둔 판가에 막힌 부분이 없는 까닭을 다루고 있는 문단을 위주로 하여 요약해야 한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단은 (마)이다.

**16** (나)의 중심 내용은 장경판전을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 지어 환기가 잘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다)는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인 첫 번째 문장(장경판전의 지붕에 ...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을 고른 뒤,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요약하였다.

**18** (라)를 제시된 문장과 같이 요약하였을 때 활용한 방법은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재구성'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요약한 문장은 ㉢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일반화', ②, ④는 '삭제', ⑤는 '선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19** 예나의 읽기 목적을 고려할 때, 이 글을 요약한 문장에 장경판전 내부 창의 위아래 크기가 다른 까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읽기 목적에 따르면 (라)를 위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약한 문장은 '장경판전의 앞쪽 벽은 아래 살창이 위 살창보다 크고, 뒤쪽 벽은 위 살창이 아래 살창보다 커서 공기가 잘 통한다. 이 때문에 경판이 잘 보관될 수 있었다.'이다.

**예시 답안** 장경판전의 앞쪽 벽은 아래 살창이 위 살창보다 크고, 뒤쪽 벽은 위 살창이 아래 살창보다 커서 공기가 잘 통한다. 이 때문에 경판이 잘 보관될 수 있었다.

**20** 이와 같은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계획하기)은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떠올리는 과정이다. 글의 개요

를 작성하는 것은 ㉡(정보 통합하기) 이후이다.

**21** (다)에서 글쓴이는 글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사진은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 주지는 않는다. 글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면 독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어떻게 이처럼 ~ 된 것일까요?'와 같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면 글에서 다룬 내용에 관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④ (라)에서 글쓴이는 조사 결과와 함께 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도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2** 이와 같은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로, 정보 전달의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와 같은 쓰기 맥락을 정해야 한다.

**예시 답안** 이와 같은 글을 쓸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

**23** 허위 내용을 퍼트리거나 남을 욕하고 비방하지 않는 이상 전문가가 익명에 기대어 글을 쓰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가가 익명에 기대어 글을 쓰는 것은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이 없다.

**24** ㉡(자기 표절)이 ㉠(짜깁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 행위인지는 이 글에서 알 수 없다.

**25** (라)의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의 유주는 실험이나 관찰 또는 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시 답안** 유주는 조사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했다. 이는 쓰기 윤리를 어긴 것으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④
07 해설 참조	08 ⑤	09 해설 참조	10 ④		
11 ①	12 ③	13 ⑤	14 해설 참조	15 ②	
16 ①	17 해설 참조	18 ②	19 ②	20 ③	
21 ③	22 ④	23 ①	24 해설 참조	25 ③	

01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수식의 기능을 하는 수식어이다. 수식어는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와 주로 용언 앞에 놓여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밑줄 친 단어 중 ‘어느’, ‘아무’, ‘이’는 관형사이며 ‘반짝반짝’, ‘빨리’, ‘엄청’, ‘정말’은 부사이다.

02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감탄사이다. ③에서 ‘우야’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03 제시된 문장은 명사(엄마), 조사(가), 명사(동생), 조사(에게), 관형사(새), 명사(책), 조사(을), 동사(주셨다)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④ 역시 명사(준서), 조사(는), 명사(수거함), 조사(에), 관형사(현), 명사(옷), 조사(을), 동사(버렸다)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명사(남호)-조사(의)-명사(집)-조사(은)-관형사(새)-명사(집)-조사(이다)

② 대명사(나)-조사(는)-대명사(그)-조사(를)-부사(무척)-동사(사랑한다)

③ 대명사(너)-조사(와)-동사(만날)-명사(날)-조사(을)-부사(만날)-동사(기다린다)

⑤ 감탄사(응)-명사(경희)-조사(는)-명사(아이스크림)-조사(을)-동사(좋아해)

04 ⑤에서 ‘크다’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동사에 해당한다.

05 ㉠은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은 문장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했을 때 ‘관계언’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은 조사이고, ㉡은 명사로 품사가 서로 다르다.

② ㉠은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은 홀로 쓰일 수 있다.

③ ㉠과 ㉡ 모두 활용할 수 없다.

⑤ ㉡은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단어를 분류했을 때 ‘명사에 해당한다.’

06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청유의 뜻을 나타나

는 어미 ‘-자’,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아라/-어라’ 등과 결합할 수 없다. ㉠에서 형용사에 명령형 어미(-하라, -하세요, -해요)가 결합된 표현인 ‘건강하세요.’는 잘못된 표현이다.

07 제시된 문장에서 단어는 ‘오지’, ‘를’, ‘탐험하러’, ‘간’, ‘형’, ‘은’, ‘언제’, ‘올까’이다.

**| 예시 답안 |** ‘오지’와 ‘형’은 명사, ‘를’과 ‘은’은 조사, ‘탐험하러’, ‘간’, ‘올까’는 동사, ‘언제’는 부사이다.

08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조사’로, 제시된 문장에서 조사는 ‘이’와 ‘-일’ 두 개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명사는 ‘신호등’, ‘녹색’, ‘때’로 세 개다.

② 동사는 ‘건너요’ 한 개다.

③ 수사는 ‘첫째’ 한 개다.

④ 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09 ㉠과 ㉡의 공통점은 모두 ‘(보)조사’로,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라는 것이다. 다만 ㉠과 ㉡은 문장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데, ㉠은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우만 아이스크림을 골랐다는 ‘한정’의 의미를 더한다. ㉡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우 역시 아이스크림을 골랐다는 ‘더함’의 의미를 더한다.

**| 예시 답안 |**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조사이며, 문장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과 ㉡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은 ‘한정’의 의미를 지니며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우만 아이스크림을 골랐다는 의미를 더해 준다. 이와 달리 ㉡은 ‘더함’의 의미를 지니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우 역시 아이스크림을 골랐다는 의미를 더해 준다.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품사는 ‘체언’이다. <보기>의 문장에서 체언은 ‘그(대명사)’, ‘여기(대명사)’, ‘언니(명사)’, ‘사과(명사)’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저’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관형사이다.

③ ‘먹어’는 형태가 변하는 동사이다.

⑤ ‘없어’는 형태가 변하는 형용사이다.

11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는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한 모든 단어이다. ㉠~㉣ 가운데 ㉢, ㉣은 동사로서 형태가 변하며, ㉠~㉡은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은 명사, ㉡은 조사, ㉢은 대명사, ㉣은 부사이다.

12 소통 내용을 고려할 때 (나)의 소통 목적은 설득이 아니라 친교 및 정서 표현이다.

13 (가)는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으로서, 견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참여자끼리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은이는 이러한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말로 사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14 (가)는 학교 누리집으로,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참여자끼리 존댓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생각과 감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참여자끼리 반말을 해도 좋다. 형은이는 소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에서는 시우에게 존댓말을, (나)에서는 반말을 쓰고 있다.

**| 예시 답안 |** (가)는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기 때문에 형은이는 시우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는 반면 (나)는 생각과 느낌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형은이는 시우에게 반말로 편하게 소통하고 있다.

15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면 인물의 성장 과정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자신의 생각, 생활 태도 등을 성찰할 수 있다. 인물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구체적인 성장의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6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17 ㉔(멍키 스페너)는 '나'가 세면대를 뚫는 데에 도움을 준 도구로,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나'는 멍키 스페너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예시 답안 |** ㉔는 '나'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나'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 도구이다.

18 '나'는 타인에게 쉽게 의존하는 성격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동적인 성격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라)에서 동영상을 스무 개쯤 찾아보고, (마)에서 작업 순서를 미리 익힌 것으로 보아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마)에서 한아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동생을 잘 돌보고, 언니로서 책임감이 강함을 알 수 있다.

19 이 글에서 '나'에게 발생한 문제는 화장실에 불이 나가고 덩달아 세면대까지 막혔다는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나)에서 '나'의 반응으로 보아 '나'는 자신이 처한 문제에 버거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글에 '나'가 좌절감을 느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에서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⑤ (라)에서 '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은 아니다.

20 ㉔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집에 자신과 한아만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둘러댄 말이다. 그러나 ㉔에서 '나'가 엄마의 당부를 잊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21 차별적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22 디지털 소통 공간의 특성 중 하나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는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누군가가 악성 댓글을 달면 이에 동조해 악성 댓글이 무분별하게 달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23 나현이는 남자라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고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4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은 게시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댓글 또는 게시 글을 작성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 예시 답안 |** 문제가 되는 댓글을 쓴 사람은 '멋진나무', '너구리', '구름'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댓글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25 '반팔 티'는 옷 소매 길이가 아니라 팔 길이에 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는 차별 표현이다.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⑤	06 해설
참조	07 ②	08 ④	09 ④	10 해설	참조
11 ③	12 ③	13 해설	14 ①	15 ④	참조
16 ②	17 ④	18 ③	19 ⑤	20 해설	참조
21 ④	22 ④	23 ②	24 ③	25 해설	참조

01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은 품사이며, 홀로 쓰일 수 없는 조사도 단어에 속한다. 또한 단어는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02 ‘둘째,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아요.’에서 체언은 ‘둘째’, ‘횡단보도’로 총 두 개이다. 나머지 문장은 모두 체언이 세 개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나’, ‘그’, ‘여기가 체언이다.

② ‘저’, ‘사과’, ‘하나’가 체언이다.

③ ‘아빠’, ‘우리’, ‘사랑’이 체언이다.

④ ‘유빈’, ‘아빠’, ‘약속’이 체언이다.

03 수식언은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로, 관형사와 부사를 가리킨다. ③에는 ‘멀리’, ‘어서’로 총 두 개의 부사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정말’이 수식언이다.

② ‘그’가 수식언이다.

④ ‘같이’가 수식언이다.

⑤ ‘새 망원경을’에서의 ‘새’가 수식언이다.

04 형태가 변하는 단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 가운데 ㉢과 ㉣은 모두 동사로, 형태가 변한다. ‘예다’는 명사, ‘아무’는 관형사, ‘나’는 조사이다.

05 ㉠은 ‘대답’의 의미를 지니며, 문장에서 다른 말들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에는 ‘-자’라는 어미가 붙었는데, 이는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②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인 ‘-자가 붙을 수 있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③ ㉢에는 ‘-르게’라는 어미가 붙었는데, 이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가 아니다.

④ ‘기다리다’는 동사이다.

06 ㉠은 주체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 ㉡은 주체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과 ㉣은 모두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했을 때에는 모두 형태가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했을 때에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시 답안|** ㉠은 형용사이고 ㉡은 동사이다. 형용사와 동사는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했을 때 모두 형태가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했을 때 형용사는 주체의 상태 등을 나타내고 동사는 주체의 동작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7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자’와 함께 쓰일 수 없다. ‘행복해지자’와 같이 써야 한다.

08 사람이나 사물 등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수사’이다. 제시된 문장에는 ‘둘’이라는 수사가 포함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체언은 ‘우리’, ‘둘’, ‘호랑이’, ‘우리’, ‘앞’, ‘사진’으로 총 여섯 개이다.

② 조사는 ‘은’, ‘에서’, ‘을’로 총 세 개이다.

③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찍었다’ 한 개이다.

⑤ 앞의 ‘우리’는 대명사, 뒤의 ‘우리’는 명사이다.

09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인 부사이다. 이처럼 문장에 부사가 적절히 사용될 경우 문장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 준다.

10 ㉠, ㉡의 의미가 다른 까닭은 ‘남호’와 ‘유미’에 붙은 조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고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이다. 따라서 ㉠에서 주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은 각각 남호, 유미이고 ㉡에서 주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대상은 각각 유미, 남호이다.

**|예시 답안|**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가’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조사 ‘를’이 결합된 체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11 (가)와 (나) 모두 온라인 대화방에서 소통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하고 있다. 즉, (가), (나) 모두 상호 작용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가)에서 시우가 견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대화방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3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라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서는 시우에게 반말로 질문을 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 진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는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예시 답안 |** 진서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에서 반말로 말하고 있고, 늦은 시간에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 이로 보아 매체에서 소통할 때에는 소통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언어 예절을 지켜 소통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14 ‘우리 반 공식 대화방’은 소통 공간의 특성상 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소통 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소통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 ‘그늘이 넓은 큰 나무’는 많은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를 고려할 때, ‘그늘이 넓은 큰 나무’는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 16 (가)에서 할머니가 길 건너 가게를 가리킨 곳에 한성설비가 있다고 하였다.
- 17 ‘나’는 (라)에서 막힌 세면대를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찾아본 뒤 멍키 스페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에서는 멍키 스페너를 쥐고 세면대를 고쳤던 당시의 느낌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라) 뒤에 제시되어야 한다.
- 18 (다)에서 ‘나’가 거짓말을 한 것은 어디 가서 집에 없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던 엄마의 말을 뒤늦게 떠올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 19 ‘멍키 스페너’는 ‘나’가 세면대를 뚫을 때 이용한 도구이다. (마)에서 ‘나’는 세면대를 뚫은 경험을 ‘멍키 스페너’를 단단히 쥐고 너트를 거뜬히 풀어 문제를 해결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다. 따라서 ‘멍키 스페너’는 그러한 성장을 경험하게 한 도구이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 준 도구인지는 알 수 없다.
- 20 ‘나’는 세면대가 막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 보려 했지만 세면대를 뚫지 못한다. 결국 ‘나’는 세면대를

스스로 세면대를 뚫는 방법을 찾아본 뒤 세면대를 뚫는 데에 성공한다. 이처럼 문제 상황을 해결한 뒤, 뚫기를 스스로 해냈다는 뿌듯함 때문에 ㉠과 같이 말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 화장실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생겼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서 뿌듯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 21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 하는 말이다. 상대방의 말에서 잘못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은 존중하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 22 제시된 언어생활 일기에서 말실수를 한 뒤에 그것을 변명한 상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말실수를 한 뒤 그것을 변명하는 태도가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3 지우는 동작을 자꾸 틀리는 도윤이에게 폭력적인 언어로 비난한다. 하지만 하울이가 자신을 말리자 “아……. 내가 힘들어서 예민했나 봐.”, “도윤아, 미안.”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도윤이에게 사과했다.
  - | 오답 피하기 |** ① 도윤이는 동작을 자꾸 틀리자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
  - ③ 지우는 도윤이에게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④ 서준이는 도윤이를 폭력적인 언어로 비난하였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도윤이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았다.
  - ⑤ 서준이는 도윤이가 계속 사과했음에도 도윤이에게 화를 냈다.
- 24 ‘억울함’은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함.’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B]에서 도윤이는 자신을 비난하는 서준이에게 “미안해, 나 열심히 연습했는데…….”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소한 도윤이가 억울함을 느낄 것이라는 짐작은 적절하지 않다.
- 25 이 만화에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 인물은 ‘하울’이다. 하울이는 계속되는 실수로 인해 위축되어 있을 도윤이의 처지를 고려해 “애들아, 그만해. … 다시 해 보자.”, “괜찮아, 도윤아.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며 도윤이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말리고 도윤이를 다독이고 격려하고 있다. 하울이의 격려를 들은 도윤이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로 보아 하울이의 존중하는 표현은 도윤이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답안** | 이 만화에서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한 인물은 하율이다. 하율이의 존중하는 표현은 도운이를 포용하고 격려해서 도운이가 자신감을 갖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모의고사   기말고사 3회						289~294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③	05 ⑤	06 해설	
참조	07 ③	08 해설	참조	09 ④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①	15 해설	참조	
16 ①	17 ②	18 ③	19 해설	참조	20 ⑤	
21 해설	참조	22 ①	23 ⑤	24 ③	25 ⑤	

- 01** '유미, 옷'은 명사, '가, 읊'은 조사, '예쁜'은 형용사, '빨리'는 부사, '입었다'는 동사로, 문장에 쓰인 단어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 | 오답 피하기 |** ③ 기능에 따라 단어를 분류할 경우, 용언에 속하는 '예쁜'과 '입었다'는 같이 묶어야 한다.
- 02** <보기>의 ㉠, ㉡과 같이 명령형,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품사는 '동사'이다. ①의 '가다', ②의 '읽다', ④의 '기다리다', ⑤의 '보다'는 모두 동사로 ㉠, ㉡과 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③의 '배고프다'는 형용사로, ㉠, ㉡과 같은 형태로 활용할 경우 '배고프다', '배고프자', '배고파라'의 형태가 되어 부자연스럽다.
- 03** ㉠은 문장에서 다른 말들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며 '대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독립언인 감탄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오답 피하기 |** ③ '아니오'는 형용사인 '아니다'가 활용한 형태이다. '아니오'가 감탄사로 쓰일 때에는 '아니오'라고 써야 한다.
- ④, ⑤ ㉡은 형용사인 '아니다'에 (연결) 어미인 '-요'가 결합한 형태이다.

**04** <보기>에 설명된 품사는 '수사'이다. '둘째'는 수사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명사 ② 명사 ④ 명사 ⑤ 관형사

- 05** ㉠과 ㉡은 모두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은 주격 조사로서 앞말이 주어임을 밝히고, ㉡은 서술격 조사로서 앞말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 앞말이 목적어임을 밝히는 조사로는 '을/를'이 있다.
- 06**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은 기능으로 분류하면 체언, 의미로 분류하면 대명사에 해당한다. ㉡은 기능으로 분류하면 수식언, 의미로 분류하면 관형사이다.

**| 예시 답안 |** ㉠은 문장에서의 기능으로 분류할 때에는 체언, 의미로 분류할 때에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은 문장에서의 기능으로 분류할 때에는 수식언, 의미로 분류할 때에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 07** (가)는 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소통 참여자의 범위가 시우와 은결중학교 학생들로 한정된다. 따라서 (가)의 소통 참여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8** (가)의 소통 맥락을 고려할 때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공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존댓말을 쓰고, 격식을 갖춘 말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우는 '...습니다.'와 같이 존댓말을 쓰고 격식을 갖춘 말투로 소통하고 있다.
- | 예시 답안 |** (가)는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공간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맞게 시우는 (가)에서 존댓말을 쓰고 격식을 갖추어 정돈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09** (가)는 비교적 공적인 공간이므로 형은이는 시우에게 존댓말로 질문하고 있다. 한편 (나)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이므로 친구끼리는 편하게 반말을 사용해도 좋다.
- 10** 다른 참여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은 (나)와 <보기>의 소통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상 공통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통할 때 다른 참여자를 배려하지 않은 사람은 <보기>에서 너무 늦은 시간에 친구들에게 말을 건 진서밖에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⑤ (나)와 <보기>는 모두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비교적 사적인 공간으로 쓰였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친구끼리 반말을 사용해도 좋으며, 격식을 갖추지 않고 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도 있다.

**11** 사적인 공간에서는 친구끼리 반말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친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이라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이 글은 세면대가 막힌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낸 뒤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끼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13** (가)에서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그 집에는 나와 한아밖에 없다는 사실’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포기한다. 이로 보아 ‘나’는 집에 엄마가 안 계신 상황에서 한아와 단둘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다)에 따르면 ‘나’가 멍기 스페너를 빌린 곳은 관리 사무소가 아니라 자전거 가게이다.

② (다)~(라)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세면대를 뚫기 전 동영상을 보며 방법을 숙지하고, 세면대를 뚫는 데 필요한 도구인 멍기 스페너도 빌려 왔다. 이는 ‘나’가 세면대를 뚫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음을 의미한다.

④ (가)에 따르면 ‘나’는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이 걱정되어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⑤ ‘나’가 자전거 가게 사장님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14** ‘나’는 (가)에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이 걱정되어 관리 사무소 아저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관리 사무소를 나온다.

**15** ‘나’는 집에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자 우선 만년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관리 사무소에도 찾아가 보는 등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려 한다. 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나’는 한아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언니, 애 어떡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언니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스스로 세면대를 고치기로 결심한다.

**| 예시 답안 |** ‘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면대를 고치기로 한 까닭은 한아가 “언니, 애 어떡해?”라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16** 이 글에서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경험을 했다.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러한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17** 이 글에 나타난 ‘나’의 경험은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어린 동생을 혼자 돌본 경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등이다. 리코더 수행 평가 연습을 위해 음악 학원에 다니게 된 것은 이러한 ‘나’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18** 이 시에서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어른스러움’과 같이 느낌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② ‘어떤 ...을 하고 나면’과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어른스러움’을 ‘그늘이 넓은 큰 나무’에 빗댄으로써 어른스러움의 특성(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앎.)을 실감 나게 드러내고 있다.

**19** ㉠은 그늘이 넓은 만큼 많은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예시 답안 |** ㉠은 많은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은 타인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0** 서준이는 “생각 좀 하면서 추라고!”, “맞아. 김도윤! 넌 그냥 빠져.”와 같이 말하며 도윤이를 폭력적 언어로 비난하고 있다.

**21** ㉠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폭력, ㉡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하기이다. 바람직한 말하기 태도는 존중하는 말하기로, 이러한 말하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예시 답안 |** ㉠을 들었을 때 도윤이는 기분이 나쁘고 서운했을 것이다. 반면 ㉡을 들었을 때 도윤이는 고마움을 느끼고 더욱 잘해야겠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즉 바람직한 말하기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하기이며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22**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 댓글

글을 다는 경우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된다.

- 23** <보기>에서 현민이는 나현이에게 “야, 너 여자 맞냐?”라고 말하며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성차별적 표현과 같은 차별적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표현을 쓰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 24** ‘반팔 티’라는 말은 팔 길이에 정상성이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어 차별적인 표현이다. 반바지는 길이가 무릎 위나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바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25** ‘반팔 티’라는 말은 팔 길이에 정상성이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으므로 소매가 짧다는 표현인 ‘반소매 티’로 바꾸어 써야 적절하다. ‘병어리장갑’은 언어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엄지장갑’ 또는 ‘손모아장갑’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로 마무리 문제로 확인**

297쪽

1. 문학과 표현

- 1** (1) 운율 (2) 은유법 (3) 추상적 **2** (1) 사뭇사뭇 (2) 왁자지껄 (3) 데구루루 **3** ㉢ **4** ㉣ **5** (1) ㉠ (2) ㉡ (3) ㉤

- 3** ‘수석’은 ‘물과 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한다. ‘소나무와 대나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하는 단어는 ‘송죽’이다.

**어휘로 마무리 문제로 확인**

299쪽

2. 요약과 정보 전달

- 1** ㉢ **2** (1) 분쟁 (2) 공소 **3** (1) ㉤ (2) ㉡ (3) ㉠ **4** (1) 툃툃하다 (2) 짹짹하다 (3) 칼칼하다 **5** ㉢

- 1** ‘바야흐로’는 ‘이제 한창, 또는 지금 바로.’를 뜻한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단어는 ‘시나브로’이다.

**어휘로 마무리 문제로 확인**

301쪽

3. 슬기로운 언어생활

- 1** (1) 단어 (2) 대명사 (3) 동사 **2** (1) ㉢ (2) ㉤ (3) ㉠ (4) ㉡ **3** ㉣ **4** (1) 통로 (2) 통신 (3) 만사형통

- 3**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뜻한다. ‘길, 다리, 철도, 전화, 전신 따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단어는 ‘불통’이다.

**어휘로 마무리 문제로 확인**

303쪽

4. 성장하는 우리

- 1** ㉡ **2** (1) 얼추 (2) 군소리 (3) 다저녁때 (4) 호들갑 **3** (1) ㉤ (2) ㉤ (3) ㉠ (4) ㉡ **4** (1) ㉤ (2) ㉠ (3) ㉤ (4) ㉡

- 1** ‘중하다’는 ‘매우 소중하다.’를 뜻한다. ‘가치나 비중 따위가 적다.’를 뜻하는 단어는 ‘경(輕)하다’이다.